

1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2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윤동주문학관-서시 시비

3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 시비-김수영문학관

4 백석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성북예술창작터-최순우 옛집-조지훈 옛집-성북선잠박물관(판소리 공연)-수연산방-심우장-길상사
*어연경 명창의 판소리 하마당

5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6 신동엽의 종로5가

도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7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처가집 터-낙원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8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바위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9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 백화점-포스트 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 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
(옛 수도극장, 스카라극장)-종로 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10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

11 손창섭의 길

문학의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블카 승강장-회현 제2시범아파트-회현 사랑채-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12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학로-한무숙문학관

13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운현궁

14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학도서관-시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15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16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관

코스 순서

- ① 문학의집 서울
- ② 외교구락부 터
- ③ 남산케이블카 승강장
- ④ 회현 제2시범아파트

- ⑤ 회현 사랑채

*퓨전 국악창작그룹 '블랙싸인'
국악공연(11시30분~12시)

- ⑥ 회현동 호텔촌
- ⑦ 회현동 은행나무



▶ 일 정 표

회 차	일 정	주 제	코 스	해 설	신청일
1	6/12 (수) 10시	서정주의 국화옆에서	서울시립 남서울미술관-남현동 가마터-서정주 시인의집(봉산산방)	이경철	6/3
2	6/19 (수) 10시	윤동주의 서시	이상의 집-청전 이상범 가옥-윤동주 하숙집-수성동 계곡-윤동주문학관	방민호	6/10
3	6/29 (토) 14시	김수영의 뿌리	문익환 통일외집-윤극영 가옥-4.19민주묘역-김수영문학관	진은경	6/17
4	7/3 (수) 10시	백석의 현당나귀	최순우옛집-조지훈옛집(방우산장)-선잠박물관(판소리공연)-이태준옛집(수연산방)-심우장-박태원집터-길상사	박미산	6/24
5	8/31(토) 18시	박태원의 천변풍경	박태원 생가터-관광공사 서울센터-광통교-관철동과 우미관 터-베를린광장-전태일 기념관-다시세운상가	황미선 신수경	8/19
6	9/4 (수) 10시	신동엽의 종로5가	돈암동 옛 책방 및 집 터-성북천-낙산-창신동 봉제거리-동대문-종로5가	박미산	8/26
7	9/14 (토) 14시	박인환의 세월이 가면	교보 앞 차가집 터-원삼동 책방 마리서사 터-원서동 집터-고희동가옥	맹문재	9/2
8	9/25 (수) 10시	이호철의 서울은 만원이다	독버우역-이호철길-이호철 집(불광 미성아파트)-불광동 성당-서울혁신파크-양천리 비석	권해상	9/16
9	10/5 (토) 14시	박완서의 나목	신세계백화점-포스트타워(옛 중앙우체국)-유네스코회관-명동예술극장-아시아 미디어센터(옛 수도극장)-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체신기념관-원서공원	박정아	9/23
10	10/12 (토) 14시	이범선의 오발탄	경리단길-보성여고-해방촌성당-해방예배당-해방촌오거리-신흥시장-108계단-용산고등학교	김미선	9/30
11	10/23 (수) 10시	손창섭의 길	남산 문학의 집 서울-외교구락부 터-남산케이불가 승강장-회현 제2사범아파트-회현 사당재-회현동 호텔촌-회현동 은행나무	한이수	10/14
12	10/30 (수) 10시	임화의 네거리의 순이	효제초등학교-낙산공원-대חק로-한무속문학관	전혜경	10/21
13	11/6 (수) 10시	최인훈의 구보씨의 하루	서울시립미술관-덕수궁 돌담길-광화문 지하보도-청진동-관훈동-윤현궁	최서향	10/28
14	11/16 (토) 14시	현진건의 운수좋은날	청운문화도서관-사인의 언덕-무계원-현진건 집터-백사실계곡	이지현	11/4
15	11/20 (수) 10시	정비석의 자유부인	세종로-종로타워(옛 화신백화점)-을지로입구(옛 아서원)-덕수궁(영성문)	강영진	11/11
16	11/30 (토) 14시	손장순의 한국인	안국역-건국준비위원회 옛터-정독도서관-국무총리공관-청와대 무궁화동산	심흥식	11/18

▶ 연보 및 작가 소개



연보

- ▶ 1922년
평안남도 평양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출생
- ▶ 1933년(14세)
만주행
- ▶ 1936년(15세)
일본 교토와 도쿄에서 고학, 중학교 전전함
- ▶ 1945년(24세)
니혼(日本)대학 중퇴
- ▶ 1946년(25세)
귀국 후 월북 평양거주
- ▶ 1948년(27세)
월남하여 교사, 잡지사에 근무

▶ 1949년(28세)

〈알구진비〉 연합신문 3월 29, 30일 독자투고

▶ 1952년(31세)

6월 김동리의 추천으로 단편 〈공휴일〉 문예 5,6월 합본에 발표, 문단데뷔

▶ 1953년(32세)

단편〈사연기〉 문예 6월호 추천완료

▶ 1954년(33세)

단편〈생활적〉 현대공론 11월호 발표

▶ 1955년(34세)

단편〈미해결의 장〉 현대문학 1월 〈인간동물원 초〉 문학예술 8월-1956년(35세) 단편
〈유실몽〉 사상계 3월, 현대문학 신인문학상 수상

▶ 1957년(36세)

단편〈조건부〉 문학예술, 〈소년〉 현대문학

▶ 1958년(37세)

단편〈잉여인간〉 사상계 발표

▶ 1959년(38세)

중편〈낙서족〉 사상계, 〈잉여인간〉으로 제4회 동인문학상 수상

▶ 1961년(41세)

단편〈신의 희작〉 현대문학

▶ 1962년(42세)

장편〈부부〉 동아일보 연재

▶ 1963년(42세)

장편〈인간교실〉 경향신문 연재

▶ 1968년(47세)

장편〈길〉 동아일보 연재

▶ 1970년(49세)

〈삼부녀〉 주간여성 연재

▶ 1973년(52세)

12월 25일 도일

▶ 1976년(55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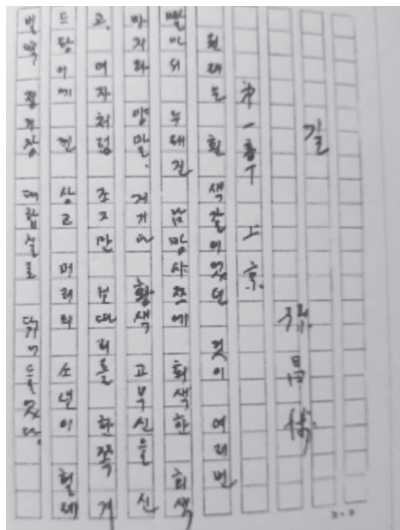
장편〈유맹〉 한국일보 연재

▶ 1977년(56세)

장편〈봉술랑〉 한국일보 연재

▶ 2010년(89세)

6월 23일 폐질환으로 별세



작가 소개



〈일본 도쿄의 한 노인병원에서 아내 우에노 지즈코여사와 함께〉

작가에게 작품은 그의 모습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 작가는 그의 의식과 생각, 가치관을 글로 표현하고 그것이 작품을 이루는 큰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그 작가의 삶과 그의 정신세계를 알 수 있다. 특히 손창섭은 유독 작품을 통해서 자신을 발설한 작가이다. 그는 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녹아내렸다. 그 과정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다.

“내 작품은 소설의 형식을 빌린 작가의 정신적 수기요, 회회(廻廻)형식을 띤 자기고백의 과장된 기록이다”
(나의 자전적 소설론, 사상계 1965년 7월)

특히 그의 단편 ‘모자도’, ‘낙서족’, ‘신의 회작’은 본인의 자전적 성격이 강하다. 알려진 대로 손창섭은 1922년 평양의 유곽 거리에서 태어났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내 어머니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고 한다. 아버지의 존재는 독립군(‘낙서족’)으로 그려지기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할머니의 손에서 자란 것이다. 어린 시절 소학교

에서 파하고 돌아온 길에 못 볼 것을 본다. 어머니와 외간 남자의 정사장면을 본 것이다. 그에 대한 충격으로 어린 손창섭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로 끝난다.

“기구한 운명과 역경 속에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내온 내가 비로소 자신을 발견했을 때, 나의 눈앞에 초라하게 떠오른 나의 인간상은, 부모도, 형제도, 고향도, 집도, 나라도, 돈도, 생일도 없는, 완전히 영양실조에 걸린 ‘육신’과 정신의 ‘고아’였다.

(나의 자전적 소설론, 사상계 1965년 7월)

이런 정상적 가정과는 기이한 성장과정을 겪으며 생리적 결함인 야뇨증을 얻게 된다. 이 증상은 청년기를 거치는 동안에도 치유되지 못하고 인생에서 아주 큰 콤플렉스로 작용한다. 어릴 적에는 당연히 오줌싸개라고 다른 아이들의 놀림감이 되었다. 자전적 소설 ‘신의 희작’의 주인공 삼류소설가 ‘S’는 소학교에서 중학교를 마칠 때까지 ‘쟁가도리’(싸움닭)이라는 별명으로 자신을 놀리는 아이들과 싸움을 벌인다.

바람난 엄마는 결국 만주로 다른 남자와 도망가고 손창섭은 엄마를 찾으러 만주로 간다. ‘낙서족’에서는 만주로 가서 고생한 어머니가 창섭과 함께 평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다. 그 후 창섭은 일본으로 떠난다. ‘신의 희작’에는 5년제 중학교를 졸업하기 까지 교토에서 4군데의 학교를 전전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사고뭉치로 살면서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일 년 이상 우유배달을 한다. 그는 하숙하고 있는 주인집에서 세계문학전집을 독파한다. 밤새워 책을 읽고 우유배달을 하면 피곤하여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자주 반복한다. 문학작품을 섭렵하면서 그는 자신보다 더 괴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소설을 통해 자신을 치유하는 방법을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나중 창작 활동을 할 때 그의 작품이 일종의 자기고백적 성격을 띤다. 행복하고 화려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그의 이야기 주제에서 멀어지게 된다.

그 뒤로 교토대학을 중퇴하고 도쿄의 니혼대학 문학부에 편입한다. 거기서 우에노 세이 지라는 친구를 알게 되고 그의 여동생 우에노 지즈코를 사귀게 된다. 그의 불우한 환경을 알게 된 그의 부친이 그들의 교제를 말리자 그는 그녀를 강제로 범하고 동거생활에 들어간다. ‘신의 희작’에는 그의 아내 이야기가 실명으로 등장한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고 그녀의 이종사촌집에서 숨어 산다. 해방 이듬해에 아이는 이종사촌에게 맡겨 버리고 혼자서 귀국한다. 니혼대학 시절 서울 모 여전에 있는 고종여동생과 편지를 교환한

다. 그 장문의 편지는 그의 인생론이며 문학론이고 연애편지였다. 그 여자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소설에 자주 등장한다. 역시 자전적 소설로 분리되는 '낙서족'의 한상희가 그녀이요, '길'에 등장하는 남주라는 여대생도 그녀의 투영된 모습이다.

서울에서 2년간의 삶은 그에게 너무도 고단한 것이었다. 집도 절도 없는 그의 쉼 곳은 비좁은 서울역 대합실이었다. 그의 작품에 보이는 서울역 대합실의 음산한 분위기는 그 당시 그가 서울역에서 겪는 고생의 표현일 것이다. '길'의 첫 부분에 나오는 서울의 지저분한 이미지는 그가 서울역에서 겪었던 체험일 것이다.

“너무 비좁아 바닥에 무릎을 쪼그리고 앉아 잠을 청할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찼는데 거의 다 만주나 일본등지에서 해방된 조국을 찾아 돌아와 의지 할 데 없는 사람들이었다. 'S'는 급기야 '나는 부모도 형제도 집도 돈도 고향도 조국도 없는 놈이다' 라고 토해 놓는다”

(신의 희작)

고달픈 서울생활 중 녀마주의 생활을 하다가 미군부대 통역관을 머리로 받아 넘기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달간 수감하게 되는데 그것이 작품화 된 것이 '인간 동물원초'이다. 그는 그 작품에서 '인간은 존엄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번역된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한 달간 복역을 마치고 1948년 삼팔선을 넘어 고향인 평양으로 간다. 그곳에서 근 2년 동안 무성공업학교와 황해도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재직한다. 그러나 그곳은 이미 소련이 점령한 공산주의의 땅이었다. 그는 다시 월남한다. 이윽고 6.25가 터져 부산으로 피난 간다. 거기서 책 외판원, 교사, 출판사직원으로 전전한다. 극적으로 부산피난지에서 자신을 찾아 한국에 온 그의 아내 지즈코와 해후한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일을 겪게 되니 1949년 3월 부산의 연합신문에 독자 투고한 <알곶은 비>가 게재된 것이다. 그 후 <문예>지 5,6월 합본호에 <공휴일>로 정식 데뷔하게 되는데 김동리의 추천이었다. 그리고 부산피난시절 우연한 기회에 딸 하나를 입양하게 되는데 이름을 '도숙'이라고 지어주었다.

피난지에서의 생활을 거쳐 조금씩 생활인으로서는 자리를 잡아가는데 그에게 문학은 하나의 생존 도구였다. 다시 그의 자전소설 '신의 희작'을 보자!

“글이건 안 된 글이건, 필자의 이름을 달아서 여러 번 발표하노라면 자연 값값은 명성이

파르게 마련인데 문학이라는 것의 사회적 특성, 이것이 그에게는 아주 난처한 것이기만 하다. 그는 행여나 유명해질까봐 겁나는 것이다.” (신의 회작)

그에게 50년대는 문학의 문이 활짝 열린 성공의 시대이나 그는 그 성공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문단의 누구하고도 교류하지 않았으며 각종 모임, 강연, 축하회나 시상식에서조차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 시인 고은은 ‘손창섭만큼 전후 한국 사회의 정서와 분위기를 절실하게 표현한 작가는 드물다’고 평가했다. 그의 50년대는 많은 단편들을 내놓는데 대표적 작품이 ‘비오는 날’이다. 잠시 내용을 살펴보면 전쟁고아인 남매는 다 쓸어져가는 집에서 사는데 주인공 원구는 비오는 날이면 알고지내는 동욱과 동옥 남매가 생각난다. 동욱은 미군병사들의 초상화를 여동생 동옥이 그려주면 갖다주고 돈을 받아와 삶을 영위한다. 동욱은 늘 험썩해진 얼굴로 웃음기 하나 없는 전쟁통에 불구가 된 여자이다. 어느 날 원구가 동욱을 찾아가자 동욱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것이다. 주인집 노파가 동욱이 빌려준 2만원을 들고 집까지 팔아 도망갔다는 것이다. 이제 집도 나와야 할 형편인 것이다. 며칠이 지나서 원구가 다시 집을 찾아가니 집 주인이 바뀌었다. 동욱은 집을 나간 지 열흘쯤 되었고 동욱도 며칠 후 집을 나갔다는 거였다. 이 작품은 한국전쟁 이후 고달프고 쓸쓸한 이야기가 중심축이다. 주인공들은 늘 녹록하고 음습한 분위기에 젖는다. 이런 장면에 등장하는 소설 속 인물들은 몸이 성치 않은 인물군상이다. 간질, 폐병, 정신이상자, 병어리 등등. 그는 소외된 인간군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작가이다. 아마도 그가 인생 구비구비 곡절을 많이 겪은 까닭이다. 밑바닥 인생을 경험한 것을 소설의 형식을 빌어 그려낸 것이기 때문일 터이다. 그만큼 인간의 가감하지 않은 실존을 직시하고 그것을 작품화한 작가이다.

1959년 <잉여인간>으로 사상계 주관의 제 4회 <동인문학상>을 받는다. 또한 현대문학을 비롯하여 수많은 단편을 게재하고 1950년대에 가장 유망한 작가로 떠오르게 된다. 세검정 시절을 거쳐 그는 흑석동에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장편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경향신문에 연재한 <인간교실>은 60년대 시대상황을 동성애, 페티시즘같은 성 풍속도를 연출한 소설이다. 50년대의 소설이 전쟁에 대한 인간성의 파괴와 그 사회에 버티고 살아가는 인간 실존에 바탕을 둔 단편에 주안을 두었다면 60년대의 작품은 전쟁이 난 상처가 가시기도 전의 혼란스러운 현대사의 정치적 상황과 그 부산물과 같은 사회상을 가감 없이 그려낸 것들이다. 50년 후반 <신의 회작>을 끝으로 그의 단편은 막을

내린다. 60년대 신문 소설을 써 내려가면서 그는 새로운 실험을 한다. 일방적인 소설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정분량의 작품을 통해서 독자와의 대화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무슨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은 전혀 없었다. 자신과 남의 작품에 관심을 쏟지 않을 뿐더러 문단과 세상의 관심을 극도로 혐오했다. 그에게 문학은 영원한 부업이었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이 부정적이고 불구적 인물만을 내세우다가 <잉여인간>에 이르러서는 인텔리라고 불릴만한 서만기라는 의사를 등장시킨다. 그런데 작중 그의 친구인 채익준과 천봉우는 바쁘게 돌아가는 사회에서 적응 못하고 도태된 남아있는 인간군상이다. 역시 혼돈과 결핍의 사회상을 반영한 작품이라고 봐야 한다. 동아일보에 <길>을 발표하고 몇 년 후에 느닷없이 손창섭은 문단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사라졌다. 아내의 고향인 일본으로 잠적한 것이다. 문학평론가 유종호는 '시국의 불안정과 김신조 남파 등 전쟁의 재발 가능성이 손창섭을 도일하게 했다고 평가한다.



<대표작 잉여인간의 영화 및 연극 포스터>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을 한 가지 이유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69년 3선 개헌안의 날치기로 인해 한국사회에서 절망해서 일본행을 택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신문 연재소설에 대한 독자들과 평단의 혹평이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 아무도 그의 도일에 대해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한다. 문단에서 스스로 고립의 길을 택했고, 괴짜로 통할 만큼 통상적 관념과는 멀게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정확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73년 그는 휴연 일본 도쿄로 떠나 극빈자에 대한 보조금과 아내의 생활비로 살아갔다. 76년 한국일보의 장기영사장의 끈질긴 권유로 <유맹>이라는 소설을 신문에 연재한다. 그 소설의 연재로 손창섭이 다시 귀국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 이후 <봉술량>을 한국일보에 연재를 마지막으로 그는 작품을 쓰지 않았다. 그를 본 사람들도 없었고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 다만 도쿄의 한 공원에서 초로의 한 신사가 성경이나 불경 등에서 사람들에게 경구가 될 만한 글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손창섭이라고 했다. 그 후 30년이 더 흘러 2009년 국민일보 정철훈 기자가 히가시쿠루메시의 노인 요양병원에서 손창섭을 만났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사인을 요청한 정철훈 기자에게 ‘나는 사인이 없는 사람이외다’가 그의 마지막 육성이었다. 2010년 6월 23일 폐질환이 악화되어 도쿄 무사시노다이 병원에서 쓸쓸히 숨을 거두었다. 유골은 그의 딸(도숙)이 살고 있는 니가타 현의 한 사찰에 안치되었다고 한다.

• 일본인 아내의 회상

“그래도 흑석동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집이 있었지요. 선생은 남들과 어울려 식당에도 가지 않았어요. 언제나 내가 끓인 김치찌개와 밥이 제일 맛있다고 손가락을 치켜세웠지요. 술과 담배도 안 하고 우아키(바람기)도 없는 강직하고 청결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진은 정말 극적으로 찍은 것인데 이거 보세요. 내가 냄비를 품에 안고 있지요. 이 냄비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 줄 아세요. 크리스마스 날 출판사에서 보너스를 받아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내가 냄비를 들고 따라 갔지요. 어떤 출판사인지, 어떤 거리인지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때는 소매치기가 너무 많아서 한 번은 선생이 인세를 받아오다가 소매치기에게 안창을 따여 돈을 몽땅 잃어버린 일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은 직후 같은데 내가 냄비를 들고 따라 나섰지요. 마침 크리스마스여서 길거리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더군요. 주소를 적어줬더니 나중에 우편으로 사진을 보냈더군요.”



1955년 12월 크리스마스 때 서울의 한 거리에서 찍은 사진. 우에노 여사가 안고 있는 냄비에는 손창섭이 보너스로 받은 돈 봉투가 들어 있었다.



구리시 토평동 한 과수원 귀퉁이에 자리한 손창섭의 국내 마지막 거주지. 36년전 모습 그대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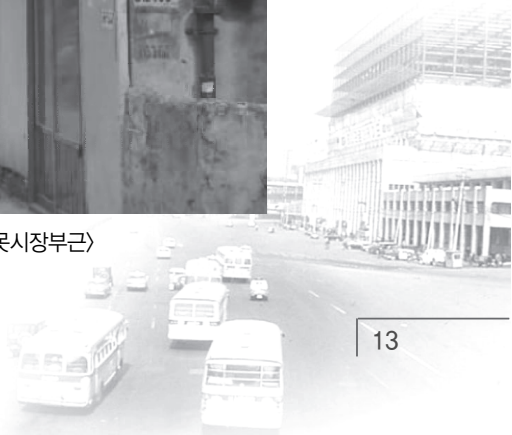
손창섭이 1973년 도알 당시 노윤기씨에게 주고 간 책들. 장편소설 ‘길’과 ‘부부’가 눈에 띈다.



1962년 2월 어느 날 남산에 올라 시내를 내려다 보며 사진을 찍은 손창섭. 도수 높은 안경과 마른 체형, 손에 든 신문에서 전후 지식인의 고뇌가 느껴지는 듯하다. 위의 이 사진이 든 앨범을 꺼내 기자에게 보여주는 우에노 지즈코 여사.



〈손창섭이 살던 흑석동 연못시장부근〉



▶ 작품 세계

‘길’의 줄거리와 시대분석

16세의 주인공 최성철은 서산에서 서울로 상경한다. 가난한 시골마을에서 갓 국민학교를 졸업한 그는 같은 학교 동창인 서봉순의 편지를 들고 서울로 올라온다. 어린 성철의 눈에 비친 서울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과는 달리 깨끗한 모습은 아니었다.

“차가 영등포역을 통과하여, 노량진, 용산으로 접어들면서 그는 맨 처음 느낀 것은 서울도 역시 지저분한 도시라는 인상이었다.”

성철의 눈에 비친 서울의 모습은 지저분한 것이었다. 그것은 앞으로 서울 생활을 몸으로 부딪히며 서울 사람들을 만나면서 얻게 될 서울의 이미지였다. 역 대합실로 마중 나온 봉순을 따라 회현동의 한 여관으로 향한다. 여관의 이름은 진옥여관이다. 봉순이는 그곳에서 여관주인, 장진옥여사의 심부름과 객실청소를 맡고 있다. 성철은 봉순의 소개로 그곳에 일하러 올라온 것이다. 진옥여관에는 봉순이 외에 30대의 지배인 장호민과 주방일과 세탁을 맡는 성철 보다 4살 많은 기숙도 있었다. 성철의 여관생활은 새로운 경험이었다. 민감한 사춘기의 나이에 그는 성에 대해 눈을 뜨는 경험을 하였고 서울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차츰 알아가게 된다. 그는 여관이 오고 갈 곳 없는 타지 사람들이 쉬는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여관은 성철이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개중에는 이십이 겨우 넘었을 애송이 청년이 사십이 넘은 아주머니와 드는 수도 있고 오십이 훨씬 넘은 점잖은 할아버지가 딸같이 앳된 이십여 세의 아가씨를 데리고 오기도 하였다”

업무가 손에 익을 무렵, 열심히 일하는 성철에게 여주인이 다가온다. 여주인의 유혹은 성에 민감한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것이었다. 그리고 성철의 마음속에는 이미 봉순이에 대한 사랑이 움트고 있었다.

“나도 잘돼 가지고 죽을 때까지 네게 고맙게 해주구 기쁘게 해주구 싶어. 정말야”

이 말은 봉순이와 함께 결혼해서 잘 살고 싶다는 성철이의 고백일까. 언제나 바르게 살아야한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기에 성에 대한 유혹이 강렬한 것이어도 참아낼 수 있었다. 그 가르침은 초등학교 5학년 시절 담임이었던 정지수 선생님의 말씀이었다.

“그의 가슴속에 혈육으로 남아 있는 것은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 올바른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참고 이기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란 즉 지시과 교양이니, 책을 많이 읽고 열심히 공부하라는 것”

바르고 곧은 성철의 모습에 비친 진옥여관은 더 이상 그가 있을 곳이 못 되었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것은 ‘청파동 아저씨’라고 부르는 강인혁이라는 존재였다. 그는 대학을 나와 중앙부처의 국장까지 지낸 사람이다. 국책회사의 이사인 그는 꿈이 있었다.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여 금배지를 다는 것이다. 이후의 꿈은 장관이다. 그는 권력욕의 DNA로 뚫뚫 뭉친 사람이다. 권력을 얻게 되면 돈과 여자는 자연히 따라온다고 생각했다. 장진옥과는 내연관계다. 추후 작품의 내용을 유추해보면 진옥을 통해 아들도 낳았을지도 모르겠다. 여관에서 허드렛일을 하는 기숙에게까지 손을 뻗어 임신도 시켰으니 인간 말종이다. 강인혁의 비리를 파헤치는 사람이 있으니 다름 아닌 그의 딸 강남주이다. 그녀는 아버지의 불륜을 폭로하는 성철과 친하게 되고, 성철은 예쁘고 똑똑한 남주를 인생의 멘토로 생각한다.

한편 강인철은 국회의원 선거자금 1000만원을 진옥에게 요청한다. 여관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것이다. 거절로 둘의 관계는 파탄에 이른다.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한 진옥은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하고 성철에게 더 강한 유혹의 손을 내민다. 그녀의 퇴폐적 모습에 환멸을 느껴 성철은 여관을 떠난다. 그가 진옥여관을 나온 데에는 성공을 위해서는 기술을 습득해야 한다는 회현부동산 부소장의 조언도 한몫했다. 부소장의 소개로 용산역 뒤 자성공업사에 견습공원으로 취직한다. 그곳은 자동차 부품을 닦고 수리해서 파는 곳이다. 사장 황덕원은 옛장수로 시작해서 큰돈을 번 사람이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생활은 너무도 열악하였다. 굴속같이 어둡고 지저분한 숙직실에서 동료들과 생활하였고 식사는 강보리밥에 달랑 김치와 된장찌개였다. 그것도 맨바닥에 놓고 먹는다. 값비싼 부속을 훔쳐 갈까봐 밖에 가지 못하도록 밤에는 밖에서 문을 잠갔으며

실내 강통에다가 소변을 보도록 했다, 작업장은 노천인 마당에 가마니를 깔고 일을 하였고 복장은 항상 기름 투성이였다.

“우선 월급 문제다. 두창의 말에 의하면 처음 두어달은 먹여만 주고 용돈으로 500원을 집어 주는게 고작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월급이라고 나오는 것은 석 달째 부터인데 그것도 단 천원이라나다. 두창인 다섯 달째인데 겨우 1500원을 받는다고 한다.”

성철의 꿈은 공장 사장이 되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곧 회의에 빠져 든다. 공장은 종고품이나 고장난 부속을 고물장수나 옛장수에게 공급받는데 그 중에는 장물도 섞여 있었다. 돈이 된다면 도둑질한 물건이든 옛장수가 훔친 것이든 무조건 받는 것이었다. 그걸 수리해서 새 물건처럼 위장해 팔아 돈을 모았다. 그곳도 있을 곳이 못 되었다. 아무 대책 없이 나왔다. 무작정 진옥여관에서 함께 일했던 기숙의 집을 찾아가다. 함께 사는 사람은 기숙보다 한 살 많은 미옥인데 둘은 술집에서 일한다. 그들과의 기막힌 동거가 시작된다. 술집에서 일하는 그녀들은 오후에 출근하여 밤늦게 퇴근한다. 그러다보니 집안 일을 할 사람이 필요했다. 성철은 방이 필요했고 두 여자는 살림 할 사람이 필요했다. 차츰 소년에서 청년으로 몸이 성장해가던 성철에게 4,5살 많은 20대의 그녀들은 참을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 유혹을 성철은 이겨냈을까?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잡는다. 마음속에서 울림처럼 퍼지는 바른 삶의 길이였다.

그는 미옥의 조언을 받아 구두담이 일을 하게 된다. 그에게 성공의 척도는 돈을 모으는 것이다. 진옥여관에서 사환으로 일도 했고 공장에서 기술을 배우기도 했지만 여전히 돈은 벌지 못했다. 이제는 장사를 해야 했다. 그 첫걸음으로 슈샤인 보이가 된 것이다.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행인과 시비가 붙어 매를 맞아 쓰러져있을 때 우연히 강남주를 만난다. 남주의 제의로 둘은 동거에 들어간다. 성철은 여복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그러나 이 동거는 남녀간의 세속적인 동거가 아니다. 강남주는 ‘대가리’라고 부르는 그의 부친 강인혁과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만 하는 모친에게 반항하기 위하여 성철과 위장 동거를 시작한 것이다. 강남주의 모친과 강인혁이 그들의 집을 느닷없이 들이닥쳐 동거는 파경을 맞는다.

성철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아둔 3만원을 종잣돈으로 고리대 금업을 하면서 임차인의 집이 있는 부평으로 이사하게 된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없는 성철에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유일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과일 행상이었다. 돈을 벌면 봉순이와 결혼을 하리리라고 결심한다. 시골에서 고생하는 모친과 동생을 서울로 불러 들이기 위해서도 돈을 벌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만만치 않다. 임차인은 매월 이자를 주기로 했지만 약속을 어기더니 급기야는 원금도 떼일 지경에 이르게 된다. 돈을 모으려는 성철이의 꿈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리고 그가 알고 지냈던 사람들의 신변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진옥여사가 자살했다는 것이다. 강인철이 자신에 대한 관심이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의 관심은 재산과 몸통이에 있었다는 것이 그녀를 괴롭게 했다. 결국 술과 남자에 탐닉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 더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의 멘토인 남주아가씨가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이었다. 아버지의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이름 모를 괴한에게 봉변을 당한 것이다. 그녀의 테러는 아버지의 상대당 출마자가 저질렀다고도 하고 아버지가 상대방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자작극을 벌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성철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다.

봉순이는 진옥여사의 자살이후 여관을 떠난다. 그리고 동대문의 과일가게에서 점원으로 취직한다. 성철의 유일한 낙은 봉순이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성철이 과일가게를 찾아 갈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한다. 과일가게에는 젊은 사장과의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이다. 결국 봉순이는 성철을 배신한다. 그가 힘들게 서울 생활을 꾸릴 수 있었던 힘은 봉순이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깨어진 것이다. 꿈은 산산조각이 난다. 그에게 돈은 무엇인가? 성공이 그의 삶에 어떤 의미인가? 그러던 차에 병상에 누웠던 어머니의 부음을 듣는다. 이제 성철이가 갈 곳은 고향밖에 없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향하는 열차에 몸을 싣는다. 그가 처음 서울에 올라올 때 보았던 서울의 첫인상. 그 지저분한 모습이 내려 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

성철이 상경한 이유는 단하나, 성공하기 위해서였다.

“아저씨! 사실은 저도 한번 크게 성공해 보려고 서울에 올라왔어요.”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성공의 신기루를 차지하기 위해서 성철이도, 봉순이도, 진옥여사도, 기숙이, 미숙이, 자성공업사 사장도 서울에 올라온 것이다. 그들에게 성공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성공의 단 맛을 본 것일까?

“사람이 성공하는 길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부자가 되는 길, 둘째는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국회의원 같은 것이 되어서 권세를 잡는 길, 셋째는 공부를 많이 해서

유명한 학자가 되는 길이다.”

성철이의 성공은 돈을 버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든 고향을 떠났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얻기 위한 과정도 그는 중시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의 뇌리 속에 박혀있는 진실 된 삶과 어긋난 길을 그는 단연 거부했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길’에 바탕을 두었을 때 버는 돈이 의미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런 가치체계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이었던 정지수 선생님의 가르침에서 출발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선생님은 성철에게 바른 생각을 심어 주었다. 그것은 성철이가 힘들고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나침판의 역할을 했다.

“사람다운 진짜사람이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이 싫어하는 짓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라도 나쁜 생각을 품지 않고, 자기가 할 일은 책임 있게 열심히 하고, 나보다 약하고 불쌍한 사람은 힘자라는 것 도와주고, 잘난 체하지 않고, 남에게 친절하고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인 것입니다.”

성철이 서울로 올라와 취업한 진옥여관에서 받는 돈은 월 2000원이었다. 고작 2000원을 받아 돈을 모으기는 힘들었다. 주인의 유혹과 불륜의 장을 제공하는 여관의 속성을 알아버려 여관을 정리했다. 공장에 취직해 기술을 배워 성공하려고 했지만 이 또한 그에게는 맞지 않는 것이었다. 고물과 장물을 닦아서 신품의 부속으로 파는 것을 배우는 기술로 버는 돈이 성공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그 성공 이면의 그릇된 모습을 발견할 땐 그는 과감히 그곳을 떠났다. 자신이 생각하는 그릇된 세상에 시비를 걸고 싸울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본다면 아마도 성철은 성공의 길을 찾지 못한 것 같다. 큰돈도 모으지 못했고 사랑하는 부순이도 빼앗겼다. 그러나 자신이 고귀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다. 이것을 성공으로 보아야 할까? 그러면 진옥여사는 어땠을까? 어릴 적에는 평화로운 가정에서 여학교를 다니면서 자랐다. 한국전쟁 때 아버지는 납북되었고, 1.4후퇴 때 어머니와 두 동생은 뿔뿔이 흩어지게 된다. 그 뒤 남의 집 식모를 거쳐 공장생활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관리자에게 몸을 빼앗긴다. 이제는 월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집을 전전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여자의 몸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된다는 것을 배운다. 그것을 가르쳐준 것은 그녀를 탐한 세상의 남자들이다. 젊은 몸뚱이 하나로 바와 카바레 등지를 옮겨 다닌다. 이런 과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여성들이 미옥과 기숙이다. 기숙은 진옥여관에서 식모살

이를 하다가 강인혁에게 몸을 빼앗기고 술집에 전전하게 된 것이고 미옥 또한 의붓아버지에게 몸을 뺏긴 후에 술집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그녀들의 눈에 비친 진옥여사는 성공한 여인이었다. 산전수전 겪어 모은 돈으로 회현동에 번듯한 3층짜리 여관을 차렸기 때문이다. 사업 수완을 발휘하여 많은 돈을 벌었다. 그것만 보자면 그녀는 성공한 여인이다. 성공의 방법을 묻는 성철의 질문에 진옥여사는 이렇게 답한다.

“그건 돈만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도둑질만 빼놓고는 남이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고, 흠발로 짓이기는 말든,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거야. 그래서 남의 침 노릇을 하든 몸을 팔든 사내 몇 놈을 녹여 내든 말든...”

그런데 왜 그녀는 자살했을까? 그녀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만일 죽는 날까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줄 남자만 있다면, 난 이 재산을 몽땅 주고 바꾼대도 아깝지 않겠어.”

돈을 모아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사랑이 필요 했다. 다정스럽게 속삭여줄 남자와 따스한 가정이 그녀에게는 성공으로 가는 길은 아니었을까? 그녀의 성공의 조건은 사랑이다. 그러면 작품 속 가장 성공한 사람의 화신인 강인혁은 성공했을까? 그에게 성공은 모든 것을 희생하더라도 꼭 이루어야 하는 필연적인 것이었다. 강인혁에게는 성공과 권력은 같은 말이다. 권력을 잡으면 재물과 여자는 뒤 따라 오는 것으로 보았다.

“돈보다는 역시 인간에게 있어선 남자 대장부에게 있어선 권력이 좋다 그거지. 일단 권력만 잡고나면 들어간 밀천 같은 건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돈도 무더기로 생기게 마련이거든...그리구 영웅호걸이란 본시 주색을 즐긴다구했다. 어디에 돈 없는 고관대작이 있구, 술과 계집을 좋아하지 않는 걸출한 인물이 있더냐.... 갖은 책략과 술수와 음모와 연기가 거미줄처럼 얽힌 정계와 관계의 내막.. 그런 속에서 비비고 나와 한자리하는 사람들이란, 뭐니뭐니 해도 다 잘난 사람이구 그런 인물이 아니군 나라의 큰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다.”

그런데 문제는 과정에서의 정당성이다. 그의 목표는 국회의원 금배지를 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장관자리 하나 꿰차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가정을 희생시켰고 내연관계인 장진옥 여사도 자살에 이르게 했다. 주변의 사람들은 연이어 파국에 이른다. 진옥여사의 자살은 물론이고 딸도 테러를 당한다. 소문에 의하면 상대편의 후보자가 타격을 주기위해

서 강남주를 테러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본인 선거운동원들이 딸에게 테러를 가하고
상대후보에게 뒤집어 씌었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든 그의 욕심에 의해 가족이 희생된
것이다. 그것을 성공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좋은가는 의문이었다. 진옥여사가 번 돈이 좀 더러운 돈이
라고 한다면, 이 곳 사장이 번 돈은 죄악의 돈인지 모른다. 남주아가씨는 자기 부친의
돈마저 뇌물과 협잡으로 번 돈이라고 해서 수치스러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돈이란 정당
한 방법으로 벌 수 없는 것일까? 부정부패, 음모, 타락이 잡초처럼 무성한 우리의 성인
사회, 특히 대도시의 추잡한 현실 속에서. 아직 때 까지 아니한 순박한 시골 소년과
소녀를 집어 던져 그 반응을 시험해보고 싶다.”

‘길’은 순결한 시골 소년, 고녀가 상경하여 부딪힌 수 많은 사회악을 이겨가는 인간
형성의 길을 실험하고자 한 것이다.

작품 속의 60년대를 풍경화로 묘사한다면 ‘혼돈’이다. 혼돈의 원인은 전쟁과 가난이었
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사회는 인간본연의 모습이 말살되는 것을 경험한다. 당연히 사회공
동체가 뿌리째 뽑혔다.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갔다. 그 후 고작 10여년이 흘러 60년대가
되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있었겠는가? 아직도 전쟁의 시퍼런 생채기가 개인과
사회 곳곳에 있을 남아 있을 뿐이다. 산 사람은 생존이 죄였다. 전쟁통에서 부지된 목숨은
전쟁 후 살아있는 자에게는 면류관이었으나 박수 받기에는 부족했다. 살아남은 생이 해결
해야할 과제가 있었다. 아물지 않은 상처를 돌볼 겨를도 없이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이었
다. 그것은 실존이었다. 실존이 값지기 위해서 성공은 당위였다. 그 몸부림은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혼란의 와중에 비로소 민주주의를, 4.19혁명을 통해서 확보했지만 그것
또한 참 어설퍼다. 지킬 힘이 국민에게 없었다. 권력을 군사정권에게 빼앗겼다. 권력을
탈취한 자들도 어설프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도 성공으로 당위성을 확보해야했다. 어떻
게 성공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어쩌면 정답은 없는지
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 삶을 던졌고, 권력을 쟁취하려는 사람은 타인을
먹이로 사용했다. 참으로 험난한 시대였다. 그러한 시대가 60년대다. 그 결과는 70년대가
말해준다. 그 모순이 심화되어 폭발한 시대가 70년대이다. 태풍속의 전야 같다고나 할까?
아니, 고요한 시대, 오케스트라가 클라이맥스를 향해 질주하기 위해 선율이 잠시 멈춰서
있는 듯한 전주곡의 시대와 같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사회에서 왜곡된 존재, 소외되고 피폐된 인간상이 손창섭의 글 속에서 잘 나타난다. 작품 '길'에도 나타난다. 60년대를 살아간 소설속의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사람이 소위 청파동 아저씨로 불리는 강인혁일 것이다. 그는 대학을 나왔고 중앙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다. 그러나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의 삶은 여러 사람의 희생위에 의존했다. 진옥여사는 과정의 희생물이다. 권력쟁취과정에서 오는 긴장해소를 위한 제물이다. 이러한 사건이 70년대에도 그대로 재연되었다. 소위 말하는 정인숙 사건이라고 말하면 너무 비약일까? 정인숙은 승용차 안에서 친오빠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하나 그녀의 수첩 속에는 수없는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이 등장한다. 성공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다. 70년대의 장진옥 여사와 보면 된다. 장진옥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정인숙의 죽음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있다. 자살이든 타살이든 그녀의 어린 자식이든 성공 가도에서 버려진 희생양임은 분명하다. 60년대를 거치며 형성된 성공신화가 윤리의 잣대로 걸러지지 않은 결과물이다. 이런 정치인의 섹스캔들은 대통령까지 죽음에 이르게 했다. 60년대의 장진옥의 자살, 70년대 초반의 정인숙사건 후반에 대통령의 죽음에 까지 이르는 10.26으로까지 치달았다.

성철이 여관을 그만둔다고 하자 장진옥이 하는 말을 들어보자.

“요즘 세상에 공장엘 들어가든, 상점엘 취직하든 쥐꼬리만한 용돈이나 집어주곤 악착스럽게 부려먹을 생각이나 하지, 일부러 시간 내주구 학비 대주면서 학교에 보내줄데가 있는 줄 아니?”

그 뿐만 아니다. 60년대의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이 폭발한 것이 전태일 사건이다. 성철이가 견습공(일명 시다)으로 일한 자성공업사의 근무조건은 70년대에 들어서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전태일은 48년생이다. 성철의 나이를 알아보자. 작중에서 강인철은 '내년에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고 했다. 당시 국회의원선거가 67년, '6.8국회의원선거'라고 한다면 성철이가 66년에 서울로 올라왔을 때 나이가 16세이니, 67년엔 17세이다. 한국전쟁 중에 태어났으니 전태일보다 2살 어리다. 성철이는 용산의 공업사에서 휴일 없이 근무를 하고 받은 월급은 최저 생계비에도 한참 못 미치는 1000원이다. 전태일이 하루 일당으로 받은 돈은 70원이라고 한다. 한 달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모으면 2000원이 된다. 그 당시 버스표 한 장 값이 30원이라 하니 버스를 2번 타는 금액이 일당인 셈이다. 자장면 한 그릇에 50원이니 곱빼기 한 그릇 먹으면 없어지는 돈이었다. 쌀 한가마

니가 5000원하는 시절이니 쌀 두말 가격이고, 전태일은 쌀 반가마니도 못되는 돈을 받았다. 전태일은 평화시장 작업실에서 겨우 몸을 숙이고 들어가는 좁은 공간속에서 일을 했지만 성철이의 생활상은 더 심했다. 함석조각으로 이어진 찜통 작업실에서 기름투성으로 일을 했다. 비싼 기계부품을 훔쳐 갈까봐 주인은 공장 문을 밖에서 걸어 잠그고 퇴근한다. 창문 하나 없는 양철지붕아래서 더운 숨을 몰아쉬며 일을 하고 자야했다. 특히 욕이요 매질이다. 먹는 음식은 보리밥에 맨밥이다. 휴일이 없는 것은 당연했다. 전태일이 1970년 11월13일 분신한 곳이 평화시장이라 한다면 그것을 잉태한 곳은 60년대 자성공업사 같은 곳이 아닐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자. 와우아파트 붕괴사건이다. 성철이가 서울 생활을 시작한 무렵인 66년은 서울에도 큰 변화가 있던 해이다. 다름 아닌 김현옥이 서울시장으로 취임한 해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화 과정, 아니 유사 이래 서울의 지형을 가장 많이 바꾼 사람이 김현옥이다. 전쟁이 끝나고 농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서울로 올라왔다. 60년 초에 300만하던 서울의 인구가 70년을 넘어서면서 600만을 돌파하게 된다. 일제 병합이후 서울이 축소되었다가 63년 경기도 11개면이 서울로 편입되면서 거의 두 배의 규모로 넓어졌다. 농촌에서 먹고살기 힘든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왔다. 전임 서울 시장 윤치영은 ‘왜 서울에 대한 아무런 발전계획이 없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서울을 개발시키면 지방에서 올라오는 인구를 감당할 수 없어서 개발 못 한다’고 했다. 60년대의 서울은 빈 곳 없는 포화상태였다. 빈공간이라면 거리에서 주위 모은 판자를 덧대어 움막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 일명 달동네이다. 동네에 화장실은 10가구 너머 1개 뿐이라 아침마다 화장실에 길게 줄서는 것이 일이었다. 수도시설이 없어서 지게를 지고 물을 길기위해 한참을 가야했다.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마련한 정책이 아파트를 짓는 시민아파트 건립계획이었다. 2000동을 지어 10만호를 살도록 한 시민아파트 사건은 결국 1970년 4월8일 와우아파트 붕괴로 33인을 희생시키며 종지부를 찍는다.

작품에는 1960년대를 암시하는 내용이 자주 등장한다.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는 성철의 질문에 지배인은 망설임 없이 박치기왕 김일(1929년~2006년)이라고 말한다. 당시는 가정에 TV수상기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사람들은 동네 하나뿐인 TV앞에 모였다. 배불독이 흑백 브라운관 tv 앞에 앉아서 아빠도, 엄마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손자도 목이 터져라 응원했다. 상대방이 반칙으로

우리선수를 괴롭힐 때 구세주로 등장하는 이가 김일이었다. 상대방이 일본사람이면 흥분은 더욱 고조되었다. 그들은 주로 가면을 썼고 하나같이 반칙을 했다. 심판은 왜 그런지 공정하지 못했고 늘 상대 선수만 편들어줬다. 반칙왕이 감춘 무기로 김일의 이마가 피투성이 된다. 그들은 마치 감독과 짜 맞추기라도 한 듯 감독 모르게 반칙을 가해왔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한숨이 절로 터져 나왔다. 이 때 쓰러져있던 김일이 비틀거리며 일어난다. 반칙왕을 박치기로 공격하면 동네가 떠나갈 듯하였다. 이런 카타르시스가 어디 있을까?

불거리, 즐길거리가 없었던 1960년대에 프로레슬링은 국민들의 개인적 마음속 상처, 일제 식민지에 대한 국가적 분노를 프로레슬링으로 달랬다. 상처 난 마음은 토해놓아야 치유가 되는데 김일이 해소해준 것이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상처, 궁핍함,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무너졌던 자존감이 김일의 박치기 한방으로 해소되었던 것이다. 레슬링의 열기는 70년대 초반까지 이어간다. 뿐만 아니다. 1966년은 김기수가 프로복싱 세계 챔피언에 등극하기도 한 해이니 성철이가 진옥여관에서 근무할 무렵 온 나라가 프로레슬링과 복싱에 열광할 때이다. 아마도 장충체육관에서의 함성소리가 회현동의 진옥여관에 서도 들렸을 테이니 김일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성철이의 대답에 지배인이 비아냥거릴 만도 하다.

“내 생각엔 뭐니뭐니 해도 요즘 세상에 기술을 배우는 게 제일 일거다. 훌륭한 기술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 그까짓 대학 나온 거보다 낫지”

작품 속에는 국제 기능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돌아와 대통령을 만난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끝나고 1966년은 제 2차 경제 개발이 시작된 해이다. 경제에 사활을 건 박정희 시대에 국가 발전을 위해 숙련된 기술자 양성은 시급한 과제였다.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처음 출전한 것도 1967년의 일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기능올림픽에서 양복과 제화부문 금메달을 획득했다. 선수들은 기술 연마에 하루 15시간이 넘도록 맹연습을 했다고 한다. 수상으로 인해 기능인 양성에 불이 붙었고 기술 개발은 국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섬유와 제화 분야의 수출도 크게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대회 출전 10년 만인 1977년, 우리나라는 드디어 종합 1위를 달성했다. 아마 성철이가 자성공업사에서 기술을 잘 연마하여 기능올림픽 기계부문에 출전했더라면 그도 금메달 하나쯤은 목에 걸지 않았을까? 그로 인해 성철이는 성공가도를 달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봉순이와의 행복한 삶이 가능했

을 테지...

강인혁이 국회의원에 출마한 것은 언제였을까? 1967년 6월 8일에 시행된 제7대국회의 원선거는 ‘6.8부정선거’라고 불린다. 선거 직전인 5월 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이 선거개입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서 온갖 탈법이 난무했다. 6.8선거는 67년 5월 3일 제 6대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를 거둔 후 민주공화당이 원내 안정세력 확보하기 위해 국회마저도 장악하기 위한 선거였다. 이에 맞서 개헌선저지와 박정희정권의 계속 집권을 억제하려는 신민당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았다. 결과는 민주공화당의 압승이었다. 2년 후인 69년 9월 14일 3선 개헌안이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동아일보는 그 다음날 각계 각층 시민의 반응을 실었는데 그중에 손창섭의 기사도 눈에 띈다.

그는 “개헌안 변칙통과가 그리 새삼스러운 노릇은 아니다. 집권당이 또다시 물리적인 힘을 과시, 다수의 횡포를 저지른 것이다. 개헌안은 국가사활 민주주의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이슈인데 집권당이 일반의 반대 여론을 전혀 무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완전히 말살한 처사다”(동아일보 1969년 9월 15일)

60년대는 과연 투표의 시대였고 정치의 시대였다.

작품 속에서 강인혁은 6.8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다. 아마도 국책이사였으니 정당은 민주공화당일 것이고 그 당의 공천으로 경기도의 어느 지역구에 출마했을 것이다. 그가 국책회사의 이사였던 만큼 그가 다니는 직원들도 선거에 발 벗고 나서지 않았을까?

“정체불명의 괴한들의 횡행, 협박, 공갈, 습격, 폭행, 납치 등등 갖은 난동이 태연히 자행되었다. 이쯤 되면 완전히 난장판이었다.”

▶ 작가와 서울

회현동

작품 속 주요무대인 회현동(會賢洞)은 현자(賢者)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박지원의 허생전에 등장하는 곳이기도 하다. 주로 퇴락한 고집 센 양반들이 많이 모여 살던 동네이니 북촌이 당대 힘깨나 쓰는 대작들의 주요 근거지라고 할 때 이에 대비되는 지역이다. 남산골이라 했다. 이 별난 양반들은 남인계열에 속하여 노론이 주름잡던 조선 말기에 권력의 정점에서 밀려났는데 주로 퇴계의 학풍을 따랐던 자들이라서 지금 회현동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퇴계로라 불리우는 이유이다. 돌산인 인왕산과 달리 흙산인 남산은 비가 오면 진흙밭이고 질척거려서 진고개, 니현(泥峴)이라했다. 그래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나막신을 신고 딸각딸각 소리를 내며 다닌다하여 '남산 딸각발이'라 한다. 그 남산에 왜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1882년 임오군란 이후이다. 임오군란이 실패로 끝나자 이에 대한 수습을 핑계로 이곳에 있던 이종승의 집과 민가들에 일본인 40여명이 살기 시작했다. 이들의 처음 근거지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예장동 8번지, 왜성대라는 곳이다. 임진왜란 때 왜장 마스다 나가모리(増田長盛)가 남산 중턱에 진지를 구축했다하여 그렇게 불린다. 서울 남산청사에서 남산케이블카까지 이다.

1884년 갑신정변으로 박영효의 집에 세워진 일본공사관은 한 달 만에 불에 탔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는 1885년 남산 녹천정을 공사관으로 제공하였고 이 일대의 땅을 영사관으로 제공했다. 1904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력이 상승한 이후에는 점점 일본인 거주 지역으로 부상했다. 남산기슭에는 정치를 담당하는 공사관이 후에 통감관저 터로 바뀌었고 합병 후에는 총독관저로 이름만 바뀌었다. 이곳을 중심으로 식민 행정 기관이 늘어갔고 남산한옥마을에는 급기야 조선헌병대 사령부가 들어섰다. 지금 총무로라 불리우는 본정통은 혼마치라고 불렸는데 식민지 돈줄을 좌지우지했던 조선은행을 비롯하여 경제를 수탈하기 위한 금융기관과 백화점, 상점들이 들어섰다. 경성의 월스트리트로 변모한 것이다. 남산위에는 정치기관과 군부대가 포진했고 남산 아래에는 금융기관 백화점등 식민지 경제 수탈기관들이 포진했다. 그 사이에 있는 동네가 회현동(일제시대 壽町, 고토부키초)이다. 회현동은 남산 위아래의 식민 행정, 상업지구에 종사하는 사람들

의 주거지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은 확산되어 서쪽으로는 남대문까지 동쪽으로
는 신정(新町)이라 불리웠던 지금의 필동, 쌍림동, 묵정동까지 확대 되었다. 신정은 유곽과
공창들이 넘쳐났다고 한다. 자연스럽게 그들도 회현동에도 진출했다. 분칠한 게이사들의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 해방이후 일인들이 모여 살았던 이 지역에 낯선 이들이 몰려들었다.

성철이처럼 무작정 상경했던 사람들이 비벼 살 곳으로는 회현동이 안성맞춤이었다.
시내 배후지이지만 남산 산록에 위치하여 주거 환경이 좋지 않았고 경사진 동네라서 빈
주택이 많았다. 주택 사이사이를 비집고 남대문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왔다. 시장의
배후지로서 가내 수공업자들도 일을 병행하기 좋은 장소였다. 그들에게 삶의 터전이 되었
다. 동대문과 남대문지역은 재래시장의 메카였고 의류도소매업자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물건을 납품하는 소규모 가내수공업자들은 회현동이 더 없이 좋은 동네였다. 지방에서
물건을 사러온 업자들에게도 잠 잘 곳이 필요했다. 또한 일제 강점기에 성을 파는 게이사들
과 성을 탐했던 남성들이 북적였던 동네였는데 그 명성을 이어받기라도 한 듯 회현동의
일부는 숙박촌으로 변모했다. 1960년대 말과 70년대를 거치면서 대규모의 여관촌이 형성
되었다. 여관에서 모텔촌으로 지금은 호텔촌으로 바뀌었다. 성철이가 서울에 와서 살던
곳의 변화과정이다.

청파동

작품에 등장하는 강인혁이 살던 곳이 청파동이다. 이곳은 경의선 출발역인 용산역과
경인선출발역인 서울역의 사이에 있는 동네이다. 일제는 철도를 식민지 조선에서 경제적
수탈과 중국진출을 위한 전략적 이동수단으로 생각하였다. 그들은 이미 병합10년 전에
경인선을 개통하였고 이어서 1904년에 경부선을, 1906년에는 경의선을 부설하였다. 청파
동은 이런 전략적 거점의 배후에 있는 동네이다. 당연히 철도 공무원들의 숙소와 철도와
관련된 제반 기계류를 제작하는 공장들과 사무실 등이 산재해 있었다. 4대문이 코앞에
있어 주택지로서 각광을 받았다. 맘만 먹으면 경성역을 통해 부산을 갈 수 있고 거기서
관부연락선을 타고 일본 본토로도 갈 수 있었다. 만주로, 중국 대륙으로, 시베리아와 유럽
까지도 연결되는 사통팔달 세계 못가는 곳이 없는 교통의 요지다. 아직도 청파동에는

적산가옥들과 잘 지어진 철공소와 기계부속상가들이 40여 곳이나 남아 있다.

후암동

용산의 배후지인 후암동은 이곳에 주둔한 조선군사령부에 근무하는 일본군인들과 이들을 따라온 상인들과 기타 잡다한 직업군의 사람들이 득실거렸다. 주요 장소로 등장하는 중구와 용산구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주요 시설물들이 집결된 곳이다. 자연히 해방과 함께 일본인들의 환국으로 인구 유출이 극심했다. 또한 이 지역은 한국전쟁 당시 군사시설의 급증으로 가장 많이 파괴된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백지역이기에 인구유입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곳이다. 이곳은 명동, 을지로 소공동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장하는 서울이라는 정체성을 간직한곳이 아니라 그 이명에 감추어진 공간, 뒷골목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서울이라는 도시는 진정 인간 존재가 성장하는 생명력 있는 공간인가?

작품 속 서울구경

진옥여사는 성철, 봉순과 함께 서울 구경을 나선다. 성철은 당시 유행했던 농구화와 바지를 입었다.

“성철이는 주인여사가 사다준 잠바에서부터, 바지, 농구화까지 처음으로 싹 갈아입고 나섰다. 지배인과 기숙이 일류신사가 되었다느니, 눈이 부시다느니 하고 놀려댔다.”

이제 시골 촌놈이 아니라 멋진 서울내기가 된 것이다. 봉순이도 한껏 멋을 내었다. 그들은 퇴계로에서 택시를 타고 창경원으로 갔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탄 택시는 갑갑한 면도 있었지만 몸이 붓뜨는 기분이었다.

“창경원에서는 벌써 밤 벚꽃 놀이를 위해 전등 가설을 하는 등 그 준비가 완료 되었다
느니 오는 일요일에는 고궁마다 수많은 인파가 밀어닥쳐 혼잡이 예상되느니.”

1986년까지 창경궁은 창경원으로 불리었다. 제 모습을 찾기까지는 무려 77년이 걸렸다. 1909년에 일제는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1973년 5월 5일 어린이 대공원이 개원하기 전까지 갈 곳이 없는 서울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휴식처였다. 창경원이라면 맹수들을 볼 수 있는 동물원과 야자수 등 진기한 식물을 볼 수 있는 식물원, 시원한 풍광을 자랑하는 연못 춘당지가 있었고 수정궁이라 하여 음식을 파는 위락시설이 있었다. 어느 집이나 거실에는 춘당지에서 찍은 가족사진이 있었다.

케이블카가 설치되어있었다. 일제가 심어놓은 벚꽃은 이국적 분위기를 연출하여 이곳이 한국 땅인지 일본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일본색이 완연했다. 이곳에서 밤마다 펼쳐지는 야간 밤 벚꽃 놀이는 연인들의 천국이었다. 성철 일행은 유원지에서 놀이시설을 타고 놀았다. 성철에게는 서울에서 처음 맞는 구경이었다. 창경원을 거쳐 다음으로 간 곳은 덕수궁이다. 60년대에 놀러 갈 곳은 주로 궁궐이었다. 덕수궁은 대한제국시기에 고종이 황제로 취임하여 작지만 황궁의 위엄을 간직한 곳이다. 1904년 원인모를 대화재로 모든 전각이 소실되었고 고종이 강제로 순종에게 황위를 물려준 비운의 궁이기도 하다. 1919년 1월 21일 덕수궁 함녕전에서 고종은 한 많은 인생을 마무리한다. 그 후 덕수궁의 구역은 3분의 1로 축소되었고 1933년 창경궁과 같이 공원이 되어 궁으로서의 위엄보다는 박물관과 공원으로 더 많이 알려졌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성철이가 알 리가 없었을 것이다. 단지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이 눈에 거슬렸다. 참견 하지 말라는 시민과 난투극이 벌어졌다. 그들이 다룬 벤치는 지금도 분수대 앞 침녕쿨로 뒤덮인 벤치였을 것이다.

다음 코스는 남산이다. 진옥여관이 남산기슭인 회현동에 있었지만 남산 구경은 사장인 진옥여사도 처음인지 모른다. 아마도 했다면 강인철과 함께 남산꼭대기에 올라갈 수도 있었겠다. 그들은 케이블카를 타기위해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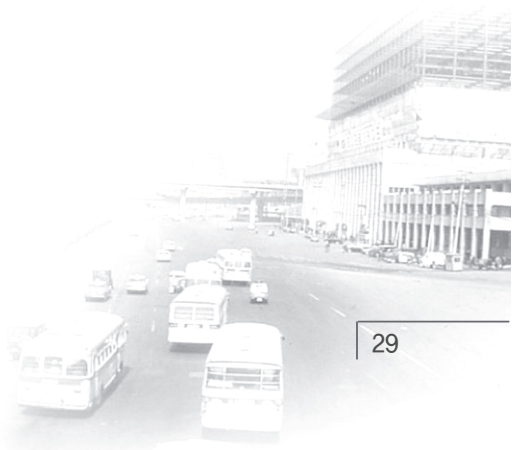
“줄에 매달려서지만 비행기처럼 공중을 나는 재미는 신기했다. 줄이 끊어지면 끔찍없이 죽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했다.”

팔각정은 남산에서 국가적인 제사를 지냈던 국사당이 있던 곳이다. 일제는 조선신궁을 세우면서 국사당을 인왕산으로 옮겼다. 그리고 그곳에 팔각정을 세운 것이다. 그곳에서

서울을 조망하는 것이 일품이었다.

“고층건물이 밀집해있는 도심지를 중심으로 시가지는 좌우로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어찌면 저렇게 집이 많은지 모르겠다. 저 속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대체 무엇을 해서 먹고들 살까. 크고 작은 저 많은 집, 그 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사람이 들끓는 이 대도회지 속에 자신이 끼어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흡사 바다에 있는 지푸라기나 거품처럼 약하고 초라하고 희미한 존재로만 느껴졌다.”

진옥여사는 봉순이와 성철이에게 진옥여관을 잘 끌어가자고 당부하며 신원보증서를 찢어버린다. 이런 퍼포먼스 통하여 믿음을 보여준 것이다. 짧은 시간이지만 참 즐거운 나들이였다.



▶ 관련 자료



‘길’에 대한 평가와 작가의 반응

〈신의 희작〉을 끝으로 단편에서 장편으로 글의 장르를 바꾼다. 단편소설은 50년대의 작품인데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는 인간실존을 그린 반면에 60년대에 쓰여진 장편소설은 그러한 인간들이 빚어내는 사회상을 그린 세태의 문제점을 그린 소설들이 주류를 이룬다. 장편소설은 주로 신문과 잡지에 연재형식을 빌어서 쓰여졌다.

그는 신문소설을 쓰게 된 동기를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대답입니다. 잡지에만 써가지고는 용돈벌이도 어려우니까요. 둘째는 나 자신 소위 고급독자보다도 일반 대중에게 더 친근감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더불어 무엇이든 이야기해보고 싶어서입니다”

(세태, 1963년 8월)

그는 연재소설의 소재를 연애, 결혼, 가족 등의 일상적 소재로 삼았다. 그런 그에게 ‘50년대의 대표작가’라는 수식어와는 전혀 다른 평들이 전해진다.

“손창섭씨는 인간의 절망을 그릴 때는 많은 독자들을 감동시켰는데 인간을 긍정적으로 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예술은 핏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여령, 김은국 대담. 경향신문 1965년 6월)

“그의 신문 소설은 실상 작가로서의 손창섭에 별다른 기여가 되지 않은 작품인 것 같다”

(유중호, 손창섭론)

그가 동아일보에 연재한 <부부>는 본격적인 대중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소설로 손창섭은 각계에서 많은 항의와 ‘타락했다’는 말을 듣는다. 이후에 쓴 소설이 ‘길’인데 이것 또한 독자와 평단의 반응이 썩 좋은 것은 아니었다.

“부정, 부패, 음모, 타락이 잡초처럼 무성한 우리의 성인 사회 특히 대도시의 추잡한 현실 속에 아직 때 까지 아니한 순박한 시골 소년과 소녀를 집어 던져 그 반응을 시험해 보고 싶다.”

(작가의 말 중에서)

손창섭은 전란이후 성장의 당위 앞에 무릎 꿇은 60년대의 세태상을 16세의 때묻지 않은 소년 성철과 소녀 봉순이의 시각으로 바라보려한 것이다. 60년대라고 하는 실험실에서 현미경과 같은 성철과 봉순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간 실존의 거짓을 파헤쳐보고 그 속에서 몸부림치는 순수한 소년 소녀를 던져 넣어 그들이 헤집고 가는 60년대의 세태를 담담히 그리려 한 것이다. 그러나 독자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하였다고 한다. ‘남녀문제를 비롯해서 정치, 사회전반의 문제에 왜 좀 더 대담하게 도전하지 못하는가’ 항의 하는 독자가 있는 반면 ‘소설이 외설하다’는 독자와 ‘작가의 주관적 현실비판이 위험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런 독자의 항의에 아무리 무감각한 손창섭도 문학적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나를 마치 섹시하며 추한 이야기밖에 쓸 수 없다고 단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앞으로는 좀 새로운 주제와 인물을 다루어 보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손창섭의 말은 그의 이후의 행적 즉 도일(渡日)과 무관하지 않게 생각된다.

소영현(연세대 국문학 강사, 북코스모스 가이드북 필자)

손창섭은 1984년, 일본으로 귀화한 후 일체의 신상이 비밀에 부쳐진 작가이다. 손창섭의 일본행은 망명인가, 도피인가. 세간에 많은 말들이 있었지만 작가는 일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그의 작품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손창섭의 일본행이 내포하는 의미는 여전히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져 있다.

손창섭은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은 작가이다. 소설이 인간에 의해, 인간에 관해 씌어진 읽을거리라고 할 때,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는 작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인간에 대한 관심은 남다르다. 그가 그리는 인간상은 '인간에 대한 환멸'과 '인간 자체에 대해 냉소'로 일관된다. 그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먹고 배설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그림으로써 인간을 동물적 존재로 전락시킨다.

손창섭이 보여주는 인간에 대한 환멸은 6. 25 체험과 피난시절의 경험에서 기인한다. 부산 피난시절 많은 사람들은 임시로 지어진 가건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는데, 손창섭의 생활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바라크'라고 불리는 가건물에서의 생활은 오물처리기가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상수도 시설은 상상도 할 수조차 없는 생활이었다. 바라크에서는 어떤 인격적 생활도 불가능했으며, 극한적 상황에 내몰린 절박한 인간으로서의 생명 유지만이 가능했다.

손창섭은 이러한 극단적인 생활에 처해진 인간을 적나라하게 묘사한다. 손창섭 소설에 인물은 동물원 우리 속에 갇힌 동물을 보고 있는 듯한 관찰자적 시선을 통해 희화화되고 있다. 그러기에 손창섭의 문학을 폭로의 문학이라 칭하기도 한다. 그의 작품에는 극한적인 상황에 놓인 인간이 드러내는 추한 면들이 작가의 냉소적 시각에 의해 낱알이 폭로되고 있다. 이러한 폭로는 인간 본질에 대한 폭로라기보다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 중 한 측면에 대한 폭로다. 즉 손창섭은 인생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 그 단면을 드러냄으로써 인간이 지닌 수성(獸性)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성질을 폭로하는데 성공했다. 따라서 손창섭의 소설이 대체로 인생의 단면과 상황에 대한 묘사에 적합한 단편소설 양식을 취하고 있음은 당연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그는 한국문단에서 이단아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다.

손창섭 소설은 특히 당대의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작품 속에 드러나 있는 우중충하고 암울한 분위기, 절망적이고 무기력한 인물들의 심리상태, 불구적인 인물들이 드러내는 자조식과 자기모멸의 감정 등이 전후의 젊은이들의 심리상태를 대변해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젊은 세대들은 손창섭 소설의 인물들에게서 자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 인물들을 통해 자기 연민의 감정까지 느낄 수 있었던 것이다.

손창섭은 1922년 평남 평양의 가난한 집안에서 2대 독자로 태어났다. 아버지가 죽자

어머니와 함께 의붓아버지를 따라 만주로 갔다. 1935년부터 10여 년간 만주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에서 교토와 도쿄에서 고학으로 중학교를 나왔으며, 니혼 대학에서 수년간 수학했다. 1946년 해방이 되자, 귀국해 자신의 고향인 평양으로 돌아갔다. 1948년 단신으로 월남해 어려운 생활을 이어나갔으며 이때 교사, 잡지 편집기자, 출판사원으로 일했다. 1961년 그는 정식으로 문단에 데뷔하기 전 〈신의 희작〉을 발표했는데, 이 작품은 그의 자전적 소설이며, 자신의 현실에 대한 고단한 경험을 실감나게 그리고 있다.

1949년 단편 〈알곶은 비〉를 〈연합신문〉에 발표하면서 정식작가로 데뷔했다. 이후 잡지 《문예》에 〈공휴일〉(1952), 〈사연기〉(1953) 등을 발표하면서 활발한 창작활동을 했다.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비오는 날〉, 〈잉여인간〉은 모두 1950년대에 창작된 소설로 이 작품에는 단신으로 월남하여 겪은 전쟁과 난민체험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혈서〉(1955), 〈미해결의 장〉(1955), 〈인간동물원초〉(1955), 〈유실물〉(1956) 등의 작품에서도 어둡고 암울한 현실의 밑바닥을 파헤치는 허무주의적 색채가 짙게 깔려 있다.

이후 그는 1960년부터 1984년 일본에 귀화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작품을 창작했다. 그러나 그 작품들은 평단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것은 손창섭의 소설세계가 1950년대의 상황 속에 갇혀있어, 새로운 시대 변화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1960년대에 김승옥을 비롯한 새로운 문학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손창섭은 당대의 현실상황을 정확하게 포착했으나, 그 현실을 역사적으로 통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가 현실을 역사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단적인 증거는 4. 19 혁명과 5. 16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그가 보여준 태도에서 발견된다. 그는 그 사건들에 대해 침묵한 채로, 자기풍자를 하고 있는 장편소설 〈부부〉(1962), 군사혁명에 대한 알레고리 소설 〈청사에 빛나리〉(1968), 타락과 부패로 가득 찬 서울에서의 삶의 모험과 실패를 통해 재출발하는 시골 출신 소년의 상경기 〈길〉(1969) 등의 작품을 썼지만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다.

국민일보 정철훈 기자(2009년 2월 22일자)

‘잉여인간’의 작가 손창섭에 대한 탐사는 2005년 시작되었다. 당시 본보 연재 ‘문학

오디세이'에 '손창섭 편'을 실으면서 "이 사람을 아는 분 누구 없습니까"라고 공개 수소문했지만 어떤 제보도 없었다.

미국의 제롬 데이비드 셀린저, 토머스 핀천 그리고 독일의 파트리크 쥐스킨트와 일본의 마루야마 겐지가 세계적 은둔 작가라면 한국에는 손창섭이 있었다. 그는 전후세대 최고의 작가란 명망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왜 출연 자취를 감췄을까.

손창섭의 도일(渡日)에 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다. 한 지인은 그가 일본으로 건너간 것은 그가 소설 창작에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한국에 있을 때 오로지 원고료 수입에 의지해 생활했는데, 원고료가 넉넉지 않아 언제나 힘들어했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상 당시 원고료가 일본 강점기보다 더 낮은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다른 지인은 손창섭이 도일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5·16 이후 군사정권 아래에서의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에 대한 환멸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혹자는 "손창섭과 연락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달라는 부탁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다. 그는 두번 다시 한국에서 회자되는 것을 절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입을 다물었다.

마침내 일본 내 주소를 확인한 건 1월 말이었다. 2월 중순 도쿄로 날아가 주소지 히가시구루메시에 도착했지만 첫날은 아파트 우편함에 붙은 이름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튿날 초인종을 눌렀을 때는 모든 게 너무 늦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손 선생은 병원에서 투병 중"이라는 부인 우에노 여사의 말에 오히려 '안심'이 되었던 건 30여년 은둔의 무게감을 의식한 일종의 아이러니였다.

보도가 나가자 격려가 잇따랐다. "손창섭을 찾아낸 것은 한국 문학사 공백을 메우는 중대한 일"(소설가 한수산) 등과 함께 "손창섭의 생존 사실을 확인한 것은 문학사적 사건인 동시에 문학 현장을 떠난 작가들을 쉽사리 잊어버리는 한국 문단의 쓸림 현상에 경종을 울리는 일로 손창섭 문학을 시급하게 재평가해야 할 때"(문학평론가 유종호)라는 평가도 뒤따랐다.

네트즌의 반응도 뜨거웠다. "손창섭 살아있다"가 전해진 지난 19일 밤 손창섭은 네이버 작가 검색 순위에서 388위나 꺾총 뛰어올라 14위, 20일엔 6위까지 상승할 만큼 검색 건수는 폭주했다. 그러나 정작 손창섭은 여전히 침묵 속에 있다. 슬프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한숨이 목에 걸려 지금도 나오지 않는다.

▶기타 코스

남산 문학의 집

명동역에서 5분 정도 올라가면 서울시 남산 청사가 나온다. 안쪽 깊숙이 들어가니 문학의 집이라고 쓰여진 곳이 있다. 높지는 않지만 꽤 깊숙한 곳이다. 내력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참 생뚱맞다. 왜 이곳에 문학의 집이 있을까? 잘 알려진 문인의 집을 리모델링한 것일까? 참 궁금하다. 이곳이 누가 살았던 집인지를 알면 그 의문은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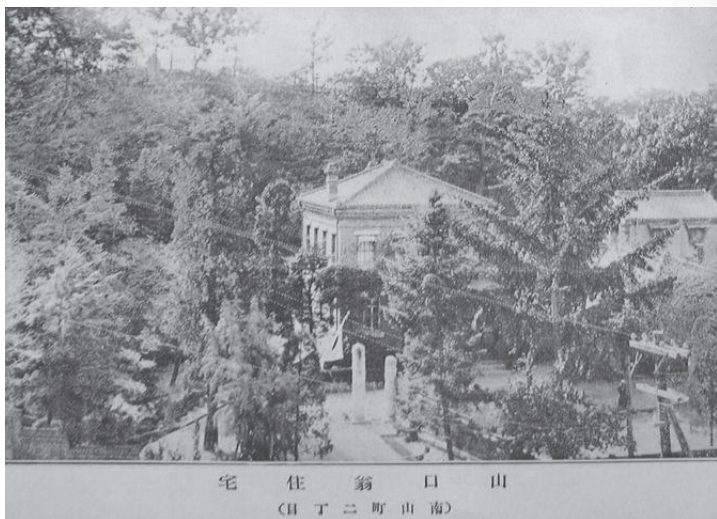
이곳은 김형욱이 살던 집이다. 중앙정보부장을 했던 그 김형욱이다. 남산 산기슭 안쪽, 아주 잘 지어진 이 집은 이름만 들어도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중앙정보부장의 관사로 쓰여진 곳이다. 이 집을 비롯한 수만평의 땅이 소위 '남산'으로 불리웠던 곳이다. '남산갈래?' 이 말은 70년대 시국관련 피의자들에게는 공포를 불러오는 말이었다. 세월이 지나 중앙정보부가 안전기획부로 바뀌었고 지금은 국정원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남산 땅이 지금은 서울시 남산별관으로 바뀌었고 중앙정보부장의 관사였던 곳은 산림청이 인수하여 문학의 집으로 바뀌었다. 문학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다. 카페에 전시된 책이 나를 무장해제시키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풍기는 단내음, 청량한 기운이 몸을 감싸면 어느새 나도 시인이 된듯하다. 과거의 무시무시한 기억이 잊혀지고 그냥 좋은 자연의 품에 안긴듯하다. 권불 10년이라고 누가 말했나? 박정희도 김형욱도 없는 이곳이 더 없이 마음에 평안을 준다. 아니 어쩌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듯도 하다.

남산 한옥마을 일대는 청학동이라 불리었다. 푸른하얏이 신선처럼 내려와 동지를 튼 곳이다. 세월은 흘러 조용한 이곳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탈하면서 녹천정이 있던 자리가 일본공사관이 되더니 통감관저가 되었으니 말이다. 통감관저 터에서 1910년 8월22일 이완용과 데라우치통감이 한일병탄조약을 맺었다. 그 위의 애니메이션 센터자리는 광화문에 있던 통감부가 이사오더니 총독부로 바뀌었다. 총독부는 1925년 대정천황의 은혼식을 기념하여 내탕금 17만원을 하사하여 '은사기념과학관'이 들어섰다. 그 후에 60만 명이나 동원된 조선박람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해방이후에 국립과학박물관으로

존속하다가 한국전쟁 때 불타버린 후에 1957년 서울방송청사, 국토통일원이기도 했다가 지금은 애니메이션센터로 변한 것이다. 1939년 총독관저는 청와대 뒤 경무대로 옮기워 갔고 역대 총독들이 이 나라를 얼마나 잘 통치했는가를 알리는 시정기념관이 되었다가 민속박물관에서 연합사령부로, 그 후 세월이 흘러 중앙정보부가 된 것이다. 통감관저 앞에 있던 남작 하야시곤스케(男爵林權助)상을 받치고 있던 좌대를 거꾸로 하여 홀대 전시를 하고 있다. 그는 러일전쟁시기와 을사늑약당시에 조선 공사였다. 이제는 '기억의 터'로 남아 있다. 일본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자는 의미가 되새겨진 곳이다. 이 아픔의 역사의 터 위에 문학의 집이 들어섰다. 문학은 이념도, 정치도 감싸는 품이 넓은 어머니와 같은 것인가 보다.

외교구락부

70년대에는 김영삼을 비롯한 유신반대세력이, 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세력이 단골 고객이었다. 장택상이 출자를 하였기 때문에 장택상의 비서 역할을 했던 김영삼이 단골이었고 이에 야권인사들이 막후 협상을 벌이는 정치적 명소가 된 것이다. 1963년 516후 김종필에 의해서 공화당 창당을 선언한곳도, 1969년 김영삼의 40대 기수론을 발표한곳도, 1973년 나훈아 김지미 약혼식도, 야당탄압이 심해지던 75년 양 김씨·윤보선 전 대통령·함석헌씨 등이 유신반대성명서를 발표한곳도 이곳이다. 1983년 김영삼의 단식투쟁선언한곳도, 1984년 민주협이 탄생한곳도, 1987년 9월 후보단일화선언이 깨어진 곳도 이곳이다. 1999년 외교구락부는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영업 상황으로 송의학원에 100억원대에 인수되었고, 송의학원은 그 자리에 송의여자대학교 별관 건물을 세웠다. 2009년 송의학원은 건물을 완전 철거하고 1200평 넓은 이곳에 제 1 별관을 마련했다. 40년 막후정치의 무대가 이제는 학생들의 배움터로 변신한 것이다. 이밖에도 고 이병철 삼성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박홍식 화신그룹회장 등 재계인사와 김옥길 이대총장 김수환 추기경, 한경직 목사 등 학계·문화계·종교계에 걸쳐 단골손님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남산케이블카

내가 어릴 때만해도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남산이었다. 그곳에서 케이블카를 타보는 것이 지금으로 하면 버킷리스트 1순위 정도는 되는 것 같다. 자동차만 타는 것도 신기한 것이어서 시골에서 자란 소녀들은 서울에서 버스 차장되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다. 자동차 타는 것도 참 신기한 것인데 외줄로 연결된 길을 따라 수 십 명을 태운 케이블카는 짜릿한 전율이었다. 짧은 시간동안 외줄에 매달려 올라갈수록 눈앞에 펼쳐지는 서울의 광경은 어른도 아이도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인 것이다.

성철이는 케이블카를 탄 소감을 “줄에 매달려서지만 비행기처럼 공중을 나는 재미는 신기했다. 줄이 끊어지면 꿈쩍없이 죽을 거라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해지기도 했다.”

남산 케이블카가 개통된 것은 1962년 5월 12일이다. 한국삭도공업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삭도(索道)라는 말이 참 생경하다. 차나 기차가 지나다니는 땅의 길은 궤도라 하고, 공중을 가로지르는 강삭(鋼索)에 탈 것을 매달아 사람이나 짐을 나르는 설비는 삭도

라 한다. ‘은하수’와 ‘무지개’라는 두 대로 운영되는 한국 최초의 케이블카이다.

회현동 승강장에서 로프에 매달려 여장동 승강장에 닿을 때까지 3분 가량 운행한다. 로프의 길이는 605미터나 되고 평균 경사각은 77도이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쉬지 않고 운행됐다. 낡은 38인승 케이블카가 48인승으로 교체됐고 위쪽 승강장에 전망대가 설치되는 등 새단장을 했다. 서울의 명물로 사랑받았던 남산 케이블카는 1990년대가 되면서 인기가 시들해졌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서울시와 민간단체들이 ‘남산 제모습 찾기’ 운동을 벌이고 남산 주변을 정비하면서 다시 명소로 탈바꿈했다. 케이블카에 대한 법도 바뀌었다. 1977년 만들어진 ‘삭도법’은 당시 국민 평균체중을 근거로, 탑승객 1인의 평균체중을 60kg으로 잡았다. 하지만 2006년 국민들의 늘어난 몸무게를 반영, 기준 체중을 65kg으로 올렸다.

진옥과 성칠 봉순이가 창경원을 거쳐 덕수궁 다음으로 온 곳이 남산인데 그들은 케이블 카를 타고 팔각정에 오른다. 그들의 흔적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울시민중에 아직도 이곳에 와서 이 케이블카를 타보지 않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팔각정에 올라보자. 남산팔각정은 원래 국사당이 있던 곳이었으나 남산에 조선 신궁이 들어선 1925년 이후에 인왕산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팔각정이 들어선 것이다. 이 팔각정도 이승만 대통령 때에는 그의 호를 따서 우남정으로 불리웠다.



회현 시범아파트



1970년에 지어진 회현 시범(시민)아파트는 서울에 마지막으로 남은 시민아파트이다. 1966년 제 13대 부산시장에서 14대 서울시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옥은 일에 미친 사람이었다. 각종도로 확장과 지하철건설을 밀어붙여 서울의 지형을 대거 바꾸어 놓았다. 강변북로를 건설하고, 국내 최초의 고가도로인 아현고가도로와 서울역고가도로를 건설하였다. 남산 1, 2호 터널과 삼청터널 그리고 사직터널도 개설하였다. 복개된 청계천 위에는 청계고가도로를 건설하였다. 많은 일을 박정희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하다가 가장 어려운 문제에 손을 댔다. 무허가 판자촌을 헐고 아파트를 건축하여 주택난을 해결하고자한 것이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3년 동안 240억 원을 투입해 2천동 10만호의 아파트를 산비탈과 고지대에 있는 무허가 불량주택을 모두 헐고 짓는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1969년의 경우 서울시 총예산(416억원)의 12.4%에 해당하는 51억 원을 시민아파트 건설에 썼다.

그 시민아파트 중 유일하게 남은 것이 회현 제2 시민아파트이다. 1969년 준공한 금화시민아파트를 시작으로 3년 동안 서울 시내에 지어진 434동 시민아파트 중 하나다.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경사진 면에 지었다는 것이다. 그것도 거의 60도가 넘는 경사면에, 경사면에 지으려면 물자도 기술도 두 배 이상 들어가야 하는데, 일화에 따르면 김현옥이 이런 높은 산비탈에 아파트를 지은 것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잘 보도록 하기 위해 지었다는

말이 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보여주기 식의 정책으로 경사면에 아파트를 마구 지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생한 문제가 와우아파트 붕괴사고이다. 역시나 흥대 뒷산인 창전동 산2번지에 와우산의 경사면을 활용한 와우 아파트를 지었다. 문제는 거기서 터지고 말았다. 70년 4월 8일 우레와 같은 소리와 함께 아파트 한 동이 통째로 무너진 것이다. 이 사고로 116가구 주민 73명중 33명이 사망하고 4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일로 김현옥은 서울시장에서 해임되고 434동중 붕괴 위험이 있는 101동은 철거했다. 철거에는 처음 지을 때와 맞먹는 50여억원이 들어갔다고 한다. 인명을 앗아간 와우아파트 붕괴사고는 당시 마구잡이로 짓고 있었던 시민아파트 건설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짓고 있던 아파트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여 지으라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한창 짓고 있던 회현 제2시민아파트는 와우아파트 붕괴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시범적으로 튼튼하게 짓게 되었다. 이 아파트의 경비원은 너무 튼튼하게 지어져서 지금도 못하나 박기도 몹시도 어렵다고 한다. 철근으로 심줄을 단단히 고정하고 그 위에 세면으로 공구리를 쳐서 외관의 허술함과 달리 무척 튼튼하게 보강한 것이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를 건설한 국내 도급순위 7위의 신안건설이 짓다보니 소파로로 연결되는 건물 웅벽을 튼튼하게 보강했다. 당시 방송국이 남산에 있었고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부부처가 남산에 포진하고 있어서 내로라하는 많은 인사들이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연예인으로는 문오장과 '아파트'를 부른 윤수일, 은방울자매, 양희은도 이 아파트에 살았다고 한다. 김혜자의 언니도 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김혜자씨도 자주 왔다고 한다. 실평수가 11.6평에 불과하지만 방이 세 개나 된다. 당시 연탄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데 국내 최초 중앙난방식으로 아파트를 짓다 보니 연탄가스 걱정도 없었다. 당시 아파트는 1개 층에 1개의 화장실만 있었는데 가구당 화장실이 있었고 수세식이었다. 비록 승강기는 없지만 건물 중간에 다리를 놓아 1층을 거치지 않고 5층부터 바로 걸어 올라갈 수 있게 해놓았다. 허나 영원히 새로운 게 어디 있을까. 1978년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아파트의 비싼 중앙난방비는 주민들에게 오히려 부담이 됐다. 특히 남산의 지형을 이용한 구름다리나 'ㄷ'자 형식의 건물 형식 등은 매우 이채롭다. 당시 시민아파트는 서민용이었으나 판자촌 원주민이 입주한 경우보다 연예인, 재력가, 방송 PD, 정부 고위인사 등이 더 많이 입주했다고 한다. 하지만 점점 노후화가 진행되어 2006년에는 외벽을 받치는 콘크리트가 서울시 건축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으며 재개발이 추진되었다. 재건축을 통해 남산 공원과 연계하여 쾌적성을 높인 예술인 아파트로 하려고 하였으나 지금은 리모델링으로 가닥을 잡았고 353세대 중 60여세대만 남아있다. 그러나 재개발이 미루어지는 사이 여러 영화 작품의 배경으로 나왔다. 영화

〈주먹이 운다〉와 〈친절한 금자씨〉, 〈추격자〉가 이곳에서 촬영하여 사회적 관심을 끌었고 현재 서울미래유산에 등재된 상황이다. 이 아파트를 보면 개발연대의 마구잡이식아파트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남아 있다.

회현사랑채



이곳에는 아직도 적산가옥이 70여 채나 남아 있다. 일제의 정치적 본산인 남산 위와 경제적 본산인 명동의 중간쯤에 자리 잡은 동네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골목골목에는 쉽사리 볼 수 없는 돌들과 건축물들이 남아있다. 미로 같은 집들을 통과하면 게스트하우스와 가내수공업업을 하는 사람들, 중국식 간판들이 많이 눈에 뜨인다. 큰 교회와 대학까지도 동네의 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 회현동을 관통하는 길은 잘 다듬어져 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섞여서 동네를 구성한다는 것이 참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울 뿐이다. 아마도

이러한 현상은 일제 강점기부터 내려온 내력일 것이다. 총독부의 관리들, 남대문시장의 상인들과 그 시장에서 일하기 위하여 형성된 여관촌과 그 사이를 오가는 기생들까지 참으로 많은 역사적 요소를 간직하고 있는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는 동네이다.

회현동 호텔촌(소설 속 진옥여관)

진옥여관은 회현동 어디에 있었을까? 소설에 등장한다고 해서 현실세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 소설 속 장소가 같은 이름으로 등장하고 특정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 작품 속에 그대로 묘사된다고 해도 소설은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작품화되는 순간 허구가 된다. 당연한 얘기지만 회현동 숙박업소에 진옥여관은 없다. 작품을 보면 여관의 위치는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라고 했다. 여관 앞에는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바바리코트를 입은 두 청년이 나무에 기대어 서 있다가 매달리고 흔들려 나뭇잎을 흔들려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성철의 분노를 샀던 문제의 그 나무이다. 우리은행 본점에 있는 은행나무쯤으로 보면 될 것이다. 작품속의 배경에 대한 묘사는

“진옥여관 바로 맞은쪽은 한약방이었고 그 위쪽 옆이 중국음식점, 그 다음은 세탁소네 중국요리점과 세탁소 사이에 복도모양 길고 좁은 방을 들인 복덕방이 있었다.”

강남주는 “길 건너쪽 중국요리점 앞의 전선주에 붙어서서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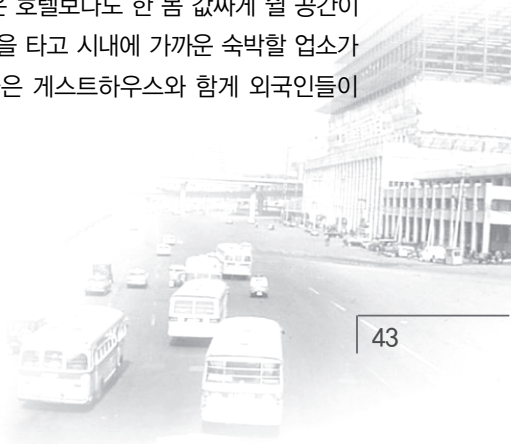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성매매단속으로 업소들의 영업이 많이 위축되어 없어지기도 했고, 재개발로 인해 여관촌이 이전하기도 했지만 몇 가지 정보로 추정하여 위치를 찾아보면 눈에 들어오는 업소가 있다. 남산 초입의 60여년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H호텔과 N호텔이다. 60년대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지만 두 호텔은 작품 속 묘사처럼 남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고 주변에 중국집이 있다. 두 호텔은 과거와는 달리 서울에 온 외국인들이 주로 애용하는 숙박업소가 되었다. 예전 이름에는 한결같이 ‘언덕’이라는 이름이었으나 지금은 같은 뜻의 영어 ‘hill’이 사용된다. 3층짜리 여관의 옥상은 성철이가 자주 올라가는 곳이었다.

“거기서는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여기저기에 명멸하는 빨강 파랑 녹색의 네온사인, 줄을 지어 달리는 자동차의 환한 불빛, 창마다 비쳐 나오는 뽀얀 형광등과 각종 가로등의 불빛, 그것은 정말 서울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밤풍경이다.”

그곳은 고향의 부모님과 동생을 기억하는 공간이었고 성공하자고 다짐하는 결의의 장소였다. 때로는 사랑하는 봉순이가 너무 세속화 되어갈 때 데리고 올라가 타이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뺨을 후려 갈기면서 바르게 처신하라고 충고하기도 했던 공간이다.

언제부터 회현동에 숙박업소가 성행했을까? 회현동 일대에는 일본식 목조 건물이 많이 들어서있다. 적산 가옥이 아직도 70여 채 남아있다. 유흥시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에 발표된 이상의 소설 ‘날개’를 보면 이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 소설 속 주인공이 미쓰코시(三越)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옥상에서 ‘매음굴’을 바라보는 장면이다. 아내의 매춘을 지켜보던 주인공이 백화점 옥상에 올라가 별 뜻 없이 주변 동네를 바라본다. 회현동과 그 옆의 목정동, 쌍림동일 것이다. 현재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쪽을 바라보면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 퇴계로가 지역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소화통(召和通)이라고 불리웠던 퇴계로는 1939년에 개통되어서 지역적인 구분이 없었고 회현동과 필동을 나누는 남산 제3 지하차도도 1978년에 지어져서 이곳은 모두가 연결되어 있던 지역이다.

쌍림동 일대에 포진해 있던 유곽들도 이곳까지 진출하여 초저녁이면 인력거꾼에 끌린 흰 얼굴의 게이샤들이 머리의 향내를 내뿜으며 회현동 언덕을 오르내렸다는 것이다. 해방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계속되어 오피스가 즐비한 시내에서 술 취한 직장인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이 동네였다. 여관의 성매매 서비스를 뜻하는 ‘여관발이’라는 은어로 널리 알려진 것이 이지역의 특징이었다. 참으로 오랜 역사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만 찾았던 것은 아니다. 당시 물류의 중심지는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이었는데 지방에서 올라온 상인들도 묵을 장소가 필요했다. 그들은 시내의 좋은 호텔보다도 한 몸 값싸게 쉴 공간이 필요했다. 지방상인들의 애용 장소가 되었고 한류붐을 타고 시내에 가까운 숙박할 업소가 필요했는데 회현동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은 게스트하우스와 함께 외국인들이 자주 찾는 명소가 됐다.



회현동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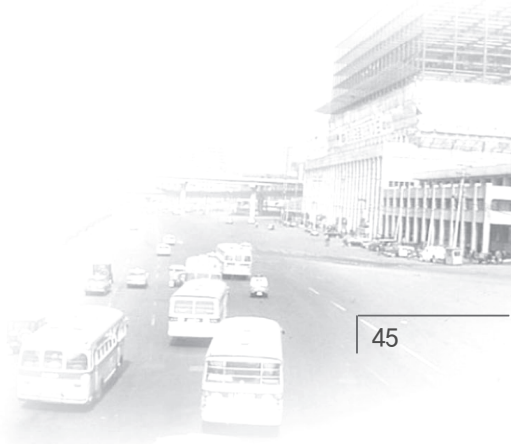


“현관 앞에 서 있는 은행나무에는 뒷가지에만 노랗게 물든 잎이 세잎 정도 남아 있었다.
이미 가로수의 잎이 진 지 오랜 계절이지만, 이상하게도 거기에만 좀 남아 있었던 것이다.”

작품 속 은행나무에 대한 묘사이다. 어디일까? 우리은행 앞 은행나무는 수령이 500년 이 훨씬 넘었으니 손창섭이 작품을 구상하러 이 일대를 돌아보았을 때도 지금과 같은 위용으로 있었을 것이다. 언제 부터일까? 먼저 회현동이라는 지명에 대해 알아보자. 회현이라는 이름은 어진 선비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모일 ‘회’ 어질 ‘현’) 중종시절 문신으로 영의정을 지낸 정광필을 비롯해 조광조, 이항 등과 함께 5현(五賢)의 한 사람인 정여창, 인조의 장인인 한준겸,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화가인 강세황 등이 회현동 사람이다. 특히 문익공 정광필(鄭光弼, 1462~1533) 집안은 회현동에서만 12명의 정승을 배출할 정도로 화려하다. 그의 옛집이 은행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후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400여 년간 동래정씨가 이곳에 포진했던 것이다. 문익공의 꿈에 한 선인이 나타나 집앞 은행나무에 서대(犀帶, 물소 뿔 장식 허리띠) 12개를 걸었다고 하는데 두 차례

영의정을 지낸 문익공의 후손 중 이 집터에서 대대로 배출된 정승이 12명에 이른다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한다.

가수 이난영이 줄곧 살다가 생을 마감한 곳도 이곳이었다. 이난영의 생은 파란만장했다.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바로 취직해야 할 정도로 집은 가난했다. 노래가 잇달아 히트하고 작곡가 김해송과 결혼해 행복을 얻는 듯했지만 한국전쟁 때 남편 김해송이 납북되면서 다시 불행이 시작됐다. 7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김시스터즈를 창설해 재기했다. 당대 최고 가수 중 한명이었던 남인수와 동거하기도 했다. 남인수 또한 1962년에 41세 나이로 요절했다. 이난영은 1965년 4월 49세 나이로 회현동 빈집에서 죽었다고 알려졌다.



▶ 해설자 및 공연자 소개

해설자 : 한이수



약력

1963년 충남 온양에서 태어나 4살 때 서울에 올라와서 줄 곳 장승백이에서 살았습니다. 89년 한양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국경제신문 광고국에서 30년 광고쟁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전공했지만 역사를 너무 몰랐습니다. 역사를 물어보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없을 만큼 무지했지만 50이 넘는 나이에 인문학에 빠져 들면서 주말이면 책속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궁궐길라잡이로 활동하며 경운궁(덕수궁)에서 주말에 시민을 위한 자원봉사로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자평'에서 '서울 진피답사'를 다수 진행하였고 '서울도시문화연구원'의 서울도시문화지도사겸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 김포에서 13년째 거주하고 있으나 서울사랑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표석을 따라 경성을 거닐다’(2018년 10월 출간), ‘표석을 따라 제국에서 민국으로 걷다’(2019년 4월 출간)를 공저하였습니다.

공연자 : 퓨전 국악창작그룹 'Blacksign'



팀소개

‘Blacksign’은 검은 신호라는 의미로 모든 색을 흡수하는 검은색의 특징처럼 우리의 음악을 사람들 마음으로 부터 흡수해서 표현하고 싶은 말이나 감정을 풀어내는 음악을 추구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피리와 장구를 통해 국악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려주고, 구성진 민요의 선율을 기반으로 생활을 연주한다. 여기에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피아노로 사람들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한다.

2019년도 1월에 창단이 된 ‘Blacksign’은 드라마와 영화의 OST 음악 작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음악에 담겨 있는 메시지를 영상으로 부각시키고자 한다.

연주 작품 소개

1. 용천검

용천검은 제주도 민요 중 한 곡으로서 남녀의 연정, 인생, 고독 등을 노래하는 곡으로 주로 노동요로 불리었다. 반복되는 후렴구를 쉽게 따라 부르며 피아노와 장구장단에 맞추어 관객과의 소통을 자아낸다.

2. 꿈의 흔적

꿈은 잠을 자는 동안에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고 상황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꿈이 흔적으로 남는다면 어떤 느낌일까? 모든 것이 완벽했던 꿈 같은 상황과 시간 그리고 감정들이 흔적으로 남아 그 꿈에 대한 그리움과 아쉬움을 그려내었다.

3. Misty

피아니스트 Erroll Garner 의 곡으로 약800 번 정도의 리메이크가 있을 정도로 매우 사랑 받고 있는 곡이다. 처음 본 사람에게 사랑에 빠져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곡으로서 안개처럼 몽환적인 느낌을 표현해내었다.

4. Autumn leaves

이 곡은 오늘날 미국의 재즈 스탠더드라고 불린다. 하지만 사실 이 곡은 1964년에 작곡된 프랑스 노래인 “Les feuilles mortes”(고엽)이라는 곡이 후에 영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Black sign’의 ‘Autumn leaves’는 이를 새롭게 편곡하여 생황을 주 선율로 민요적인 선율을 더하여 한국적인 느낌을 표현해내었다.

5. 편지

안부나 소식을 물어볼 수 있었던 수단, 바로 편지. 소중한 사람에게는 꼭 한번 써주고 싶었던 하나의 소통. 그렇지만 보낸 편지에 대한 답장이 돌아올 수 없다면 그리움은 배가 된다. 먼저 세상을 떠난 이도 보내고 싶어도 보낼 수 없는 답에 더욱더 그리움이 커지지 않을까? 전할 수 없는 이 그리움을 대신해서 전해본다.

6. 무인의 道 (무인의 길)

무예를 닦은 사람을 일컫는 무인, 그리고 그 무인이 되기 위해 가야 하는 길 보이지 않는 꿈의 길은 두렵지만 자신과의 싸움으로 홀로 묵묵히 버텨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그려낸다.

7. 태평가

태평가는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으로써 인생무상과 유희를 주제로 한 신민요이다. 공감대를 사는 가사가 관객의 귀를 자극하고 빠르고 경쾌한 리듬으로 사람들에게 흥을 더불어 준다.

8. 군밤타령

군밤타령 또한 경기민요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한 곡으로 신민요에 속한다. 한때 조기잡이로 수천척의 어선과 어민이 몰렸던 연평도 파시의 장관을 노래하고 있다. 또한 자연을 통해 인간의 소망이나 정감을 표현하기도 하고 남녀의 사랑을 발랄하게 그려내기도 한다.

공연 경력

- 서울시설공단 주최 청계천에서 '화향연화' 야간 공연(2019년 08월 02일, 10일)
- 창동 플랫폼 61 2층 레드박스에서 '소리모아 놀아보자' 공연(2019년 09월 18일)
- 성북동 옛돌 박물관 공연(2019년 09월 22일)

연주자 프로필

▶ 김은지(타악 연주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재학 중
- 강릉 아트센터 상주단체 한소리 전통예술단 타악 단원
- 강감찬 장군 축제 행사 제2회 전국 고법 판소리 경연대회 고법부 일반부 최우수상 수상

-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 고법 전수자
- ▶ 이재득(생황, 피리, 태평소, 민요 연주자)
 -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 주요 무형문화재 46호 피리 정악 및 대취타 전수자
 - 이북 5도 무형문화재 제2호 평안도 향두계놀이 전수자
 - 대학국악제 대상, 대학가요제 대상, 한강가요제 대상, 오월 창작 가요제 입상
- ▶ 서주원(피아노, 보컬 연주자)
 - 리라아트고 졸업

▶ 2019 서울문학기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한국의 대표도시 서울과 서울사람의 정체성을 1920~1960년대 출간된 문학작품 현장 탐방을 통해 탐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학향유의 기회를 제공

추진방향

서울과 서울사람의 삶을 묘사한 작품 속 현장과 작가들의 체취를 작가, 문학평론가, 전문 해설가의 설명을 통해 찾아보는 본격 문학탐방 프로그램을 추구

사업운영

- 사업기간 : '19. 6.12 ~ 11.30(총 16회 운영)
- 참가대상 : 서울시민 640여명 (회당 40명)
- 운영 : 총 16회 중 평일(수 10시) 8회, 주말(토 14시) 8회로 분리 실시해 직장인과 학생 참여 유도, 혹서기인 8월 1회는 야간(18시) 기행
- 주요내용
 - 지역별 서울문학유적지 탐방
 - 서울소재 문학관 및 집터 탐방
 - 문학인 묘소 및 시비 탐방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news.seoul.go.kr/culture)에서 선착순 마감
 - 문의 : 02-772-9069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www.suci.kr



사단법인 서울도시문화연구원
Seoul Urban Culture Institute association, inc.

설립목적

서울시의 문화예술 발전 정책에 부응하며, 서울 고유의 도시문화 창달과 바람직한 미래 서울문화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풍요로운 문화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

설립취지를 달성하고자 평생교육,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시설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와 공헌을 통해 서울의 문화정체성 정립에 노력. 특히 서울 고향 만들기, 서울역사문화학교 운영, 서울도시문화 지도사 양성 같은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설립경위

2016년 4월29일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받음.

실적

- 2016년 7월 25일~8월 31일까지 제1회 서울도시문화지도사 1,2,3급을 모집, 9월 19일 1급, 2급, 3급 등 각급 지도사 50명을 배출.
- 호현당 선비체험 캠프(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2016년 7월~8월 3회, 서울시내 초등학교 80여명 대상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한양도성 야행(서울시 한양도성도감과, 2016년 9월~10월 2회, 서울시민 60여명 대상 답사)
- 종로역사인물 열전(종로구청, 2016년 10월~12월, 10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행사)
- 서울골목탐험대 운영(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7년 5월~10월 진행 중 5개 조 25명 운영)
- 언론인 역사생태탐방(삼성언론재단, 2017년 5월, 현역 언론인 4개조 70명 운영)
- 2017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7년 5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25회 탐방 1000여명 참가)
- 2018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8년 5월~12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1400여명 참가)
- '디지털 인문도시 프로젝트: 순성의 복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이 2018년부터 8월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지원하는 인문학 대중화 사업. 20개 인문학 강좌 주관)
- 2019년 서울미래유산-그랜드투어(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 4월~11월, 매회 서울시민 40여명 대상 서울미래유산 35회 탐방 진행 중)
- 참가신청 : 서울미래유산 <http://futureheritage.seoul.go.kr>)





2019 서울 문학 기행

발행처 : (사)서울도시문화연구원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4길 28-3

02) 772-9069, www.suci.kr

발행 및 편집인 : 서울도시문화연구원

원장 노주석